

2023 고령자 통계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박순옥 (042-481-2240)

일 러 두 기

-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고령인구,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및 의식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여 「고령자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인용된 각 통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연령이 다른 통계 자료출처 및 대상 연령 >

-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60세 이상
- 「상대적빈곤율」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OECD: 66세 이상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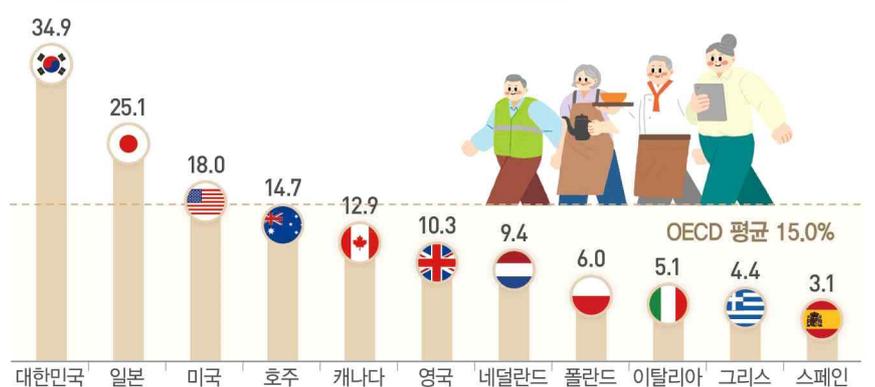
- 금년에는 특별기획으로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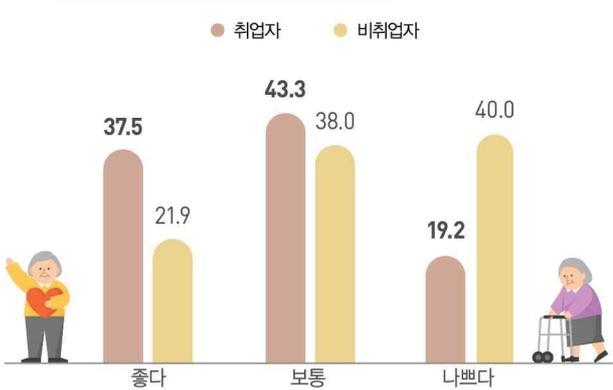
취업자·비취업자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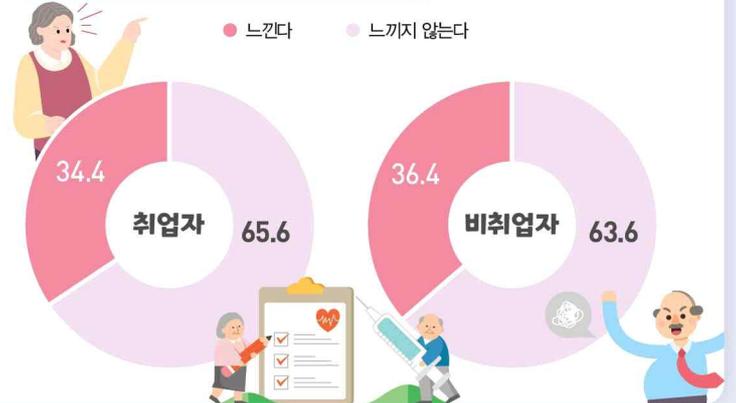
OECD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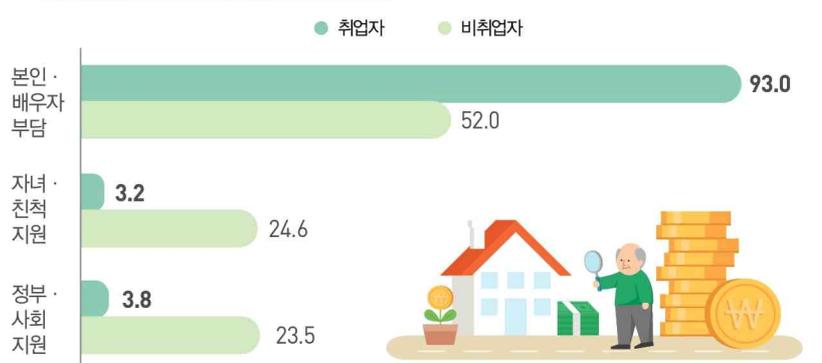
주관적 건강평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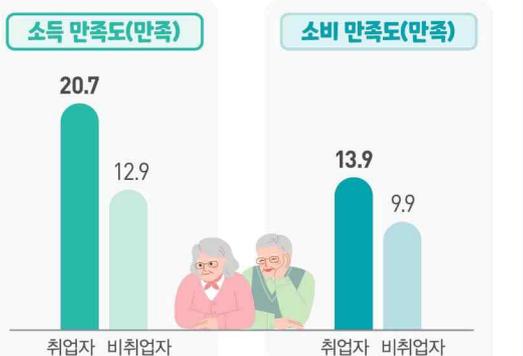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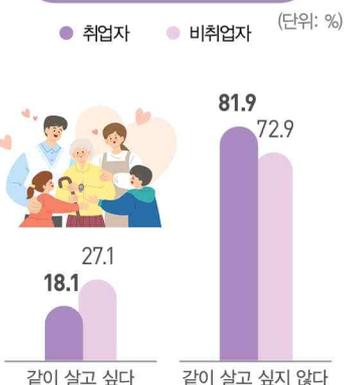
생활비 마련 방법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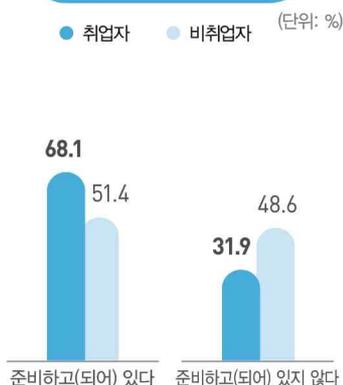
소득 및 소비 만족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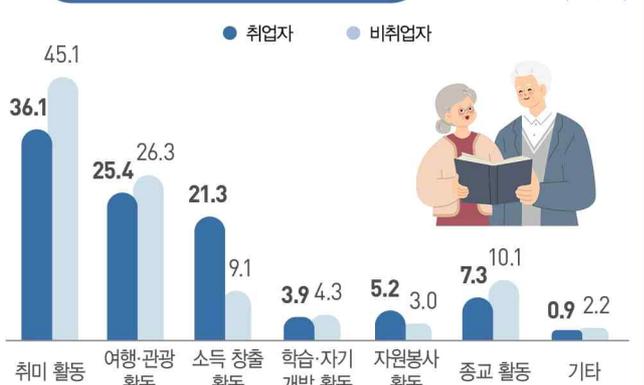
향후 자녀와 동거의향 (2021)



노후준비 (2021)



노후를 보내는 방법 (2021)



2023 고령자 통계

인구·가구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성별(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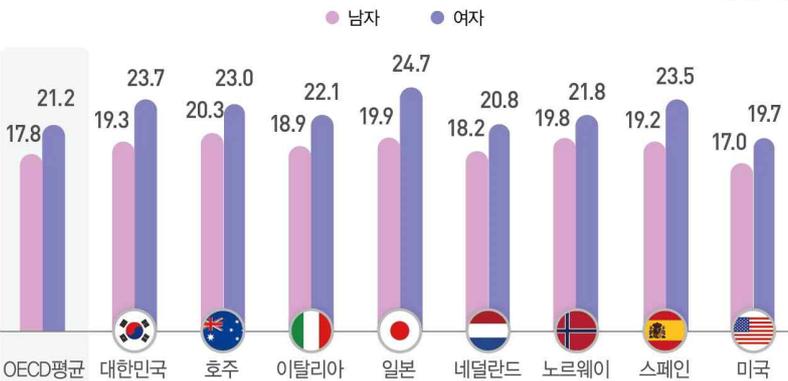
연령별(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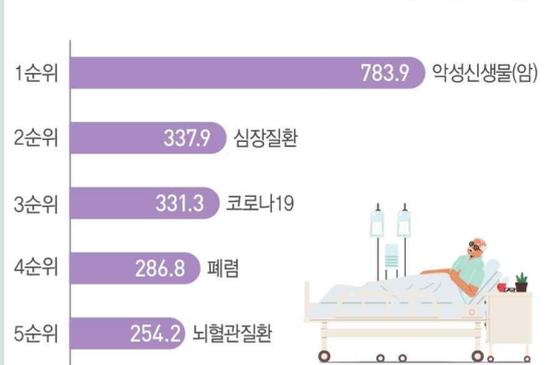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2023)



65세 기대 여명(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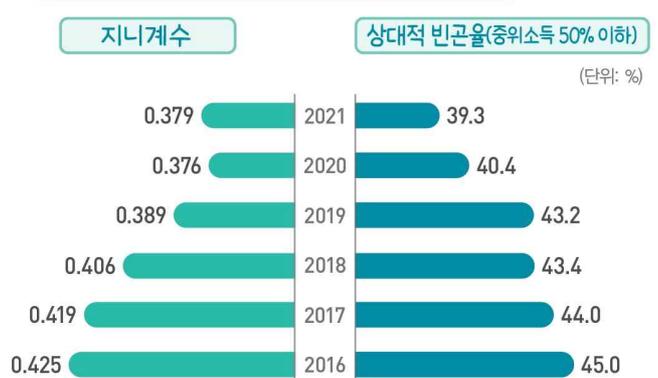
사망원인(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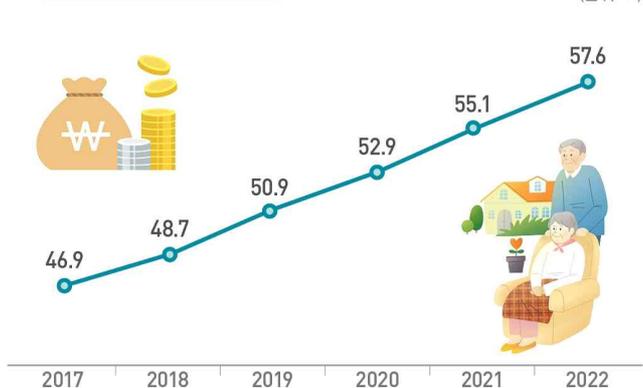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은퇴연령(66세 이상)층 주요 소득분배지표



공적연금 수급률



교통사고 사망률·부상률



목 차

□ 요약	1
□ 2023 고령자 통계	5
<특별기획>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6
I.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20
2. 지역별 고령인구	22
3. 고령자 가구	23
4. 이혼 및 재혼	24
5. 주택 소유율	25
II. 건강	
6. 기대여명	26
7. 사망원인별 사망률	27
8. 본인부담 의료비	28
9. 건강검진 수검률	29
10. 운동 실천율	30
1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31
12. 노인 복지시설	32
III. 소득보장	
13. 자산 소유액 및 구성	33
14. 은퇴연령층 빈곤율	34
15. 공적연금 수급률	35
16. 고용률	36

IV. 사회참여·관계

17. 평생교육 참여율	38
18. 노인차별	39
19. 세대 갈등	40

V. 생활환경

20. 보행 안전성	41
21. 운전자 사고 비중	42
22.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43
23. 주거 만족도	44

VI. 주관적 웰빙

24. 삶에 대한 만족도	45
25. 성취에 대한 만족도	46

□ 통계표	47
-------------	----

□ 국제비교

1. OECD 주요 국가별 연령구조	81
2. OECD 주요 국가의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도달연도 및 소요연수	82
3.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83
4.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	84

2023 고령자 통계 (요약)

특별기획 |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인식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였고, '21년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임

- '22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5천 명, 고용률은 36.2%이며, 고용률은 10년 전보다 6.1%p 상승하였음(6쪽)
- ※ '21년 OECD 회원국(38개국)의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 15.0%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34.9%), 일본(25.1%), 스웨덴(19.2%), 미국(18.0%) 등 11개국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임

2022년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중도 낮았음

- '22년 본인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37.5%로 비취업 고령자(21.9%)보다 15.6%p 높았음(7쪽)
- '22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중은 34.4%로 비취업 고령자(36.4%)보다 2.0%p 낮았음(9쪽)

2021년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93.0%이고, 소득 20.7%, 소비생활에 13.9% 만족하고 있음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93.0%), 정부·사회단체(3.8%), 자녀·친척지원(3.2%) 순임(11쪽)
 - 비취업 고령자는 본인·배우자 부담(52.0%), 자녀·친척 지원(24.6%), 정부·사회단체(23.5%) 순임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 및 소비 만족도는 각각 20.7%, 13.9%로 비취업 고령자보다 각각 7.8%p, 4.0%p 높았음(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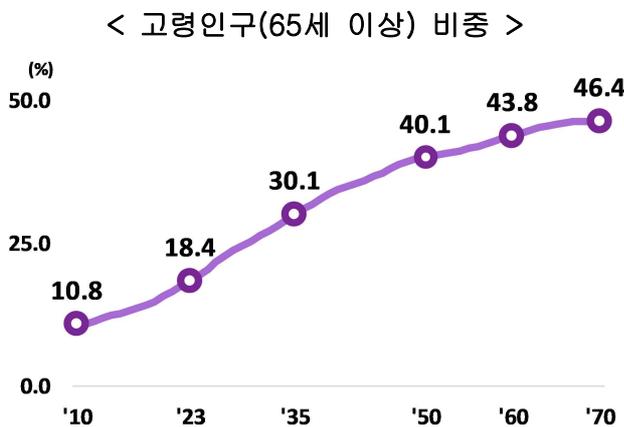
2021년 일하는 고령자 중 81.9%는 향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고, 68.1%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음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 중 81.9%는 향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고, 비취업 고령자(72.9%)보다 9.0%p 높았음(16쪽)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68.1%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비취업 고령자(51.4%)보다 16.7%p 높았음(17쪽)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36.1%), 여행·관광(25.4%), 소득 창출(21.3%) 순임(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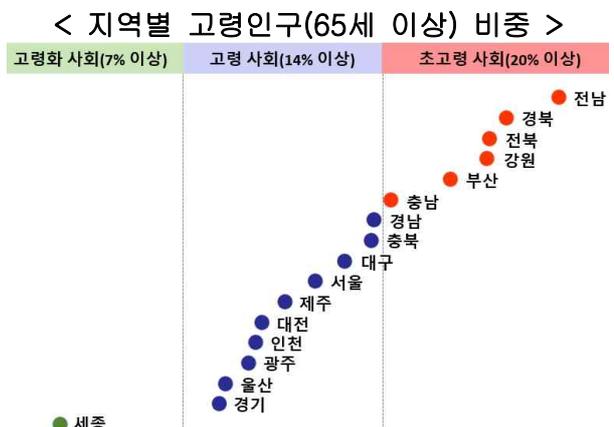
I 인구·가구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임

- '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20쪽)
- '23년 성별로 고령인구 비중을 보면, 여자 20.6%, 남자 16.2%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p 높음(21쪽)
- '23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6곳임(22쪽)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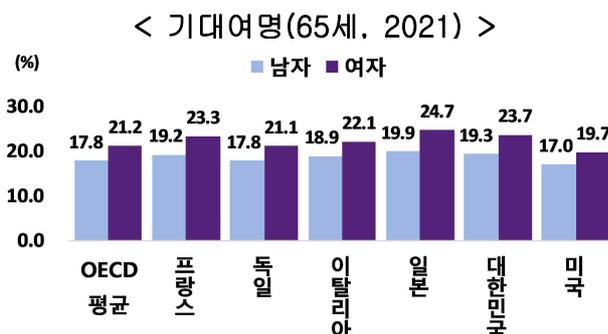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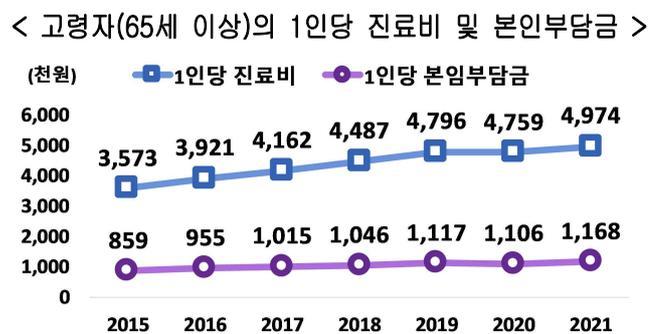
II 건강

2021년 65세 기대여명은 21.6년, 75세 기대여명은 13.4년임

- '21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6년(남자 19.3년, 여자 23.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임(26쪽)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악성신생물(암) 783.9명, 심장질환 337.9명, 코로나19 331.3명, 폐렴 286.8명, 뇌혈관질환 254.2명 순임(27쪽)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97만 4천 원, 본인부담금은 11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만 5천 원, 6만 2천 원 증가함(28쪽)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3.9.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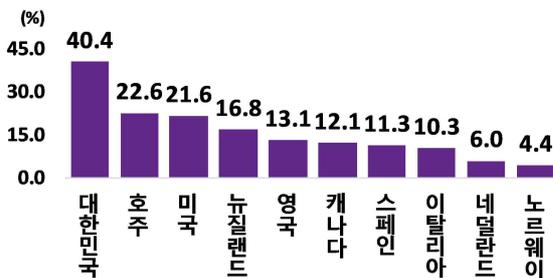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III 소득보장

2022년 고령자 가구 순자산은 4억 5,364만 원, 공적연금 수급률은 57.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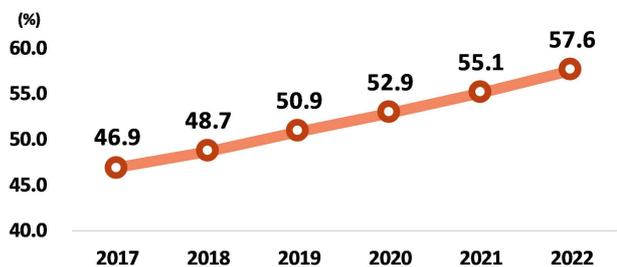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3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천 316만 원 증가함(33쪽)
- '21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보다 1.1%p 감소하였고, 지니계수 0.379, 소득 5분위 배율 6.92배임(34쪽)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57.6%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35쪽)

<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66세 이상, 2020) >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3.9.1. 기준)

< 공적연금 수급률 >



자료: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연금자료

IV 사회참여·관계

2022년 65~79세 고령자 중 17.6%가 평생교육에 참여하였고, 19세 이상 성인 중 10.4%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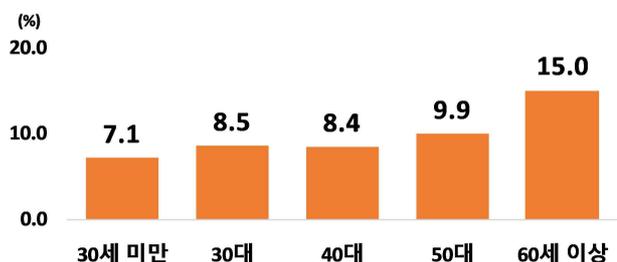
- '22년 65~79세 고령자 중 17.6%가 평생교육에 참여하였고, 전년대비 1.6%p 감소함(38쪽)
- '22년 19세 이상 성인 중 10.4%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장애인(18.9%)」 다음으로 높았음(39쪽)
- '22년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7점으로 전년과 동일함(40쪽)

< 평생교육 참여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연령대별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2, 노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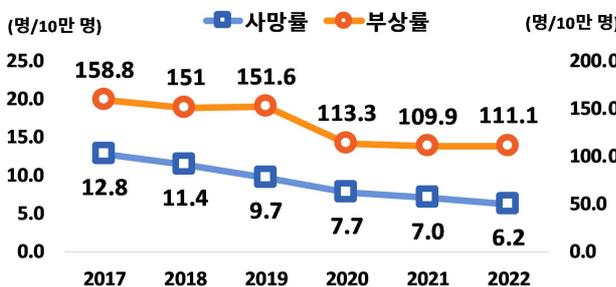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V 생활환경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6.2명, 부상률은 111.1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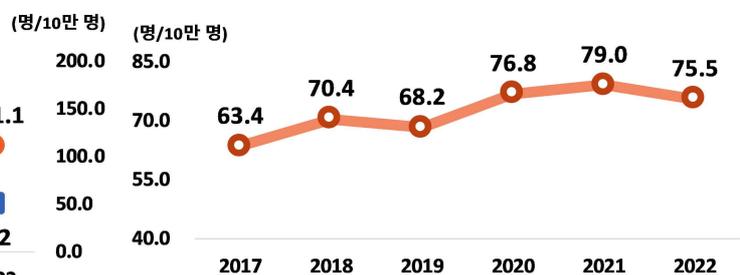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6.2명으로 전년 대비 0.8명 감소하였고, 부상률은 111.1명으로 1.2명 증가함(41쪽)
- '22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17.6%로 전년 대비 1.9%p 증가, 사망자 비중은 26.9%이며, 부상자 비중은 17.5%임(42쪽)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 명당 75.5명으로 전년 대비 3.5명 감소함(43쪽)

<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 및 부상률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학대 피해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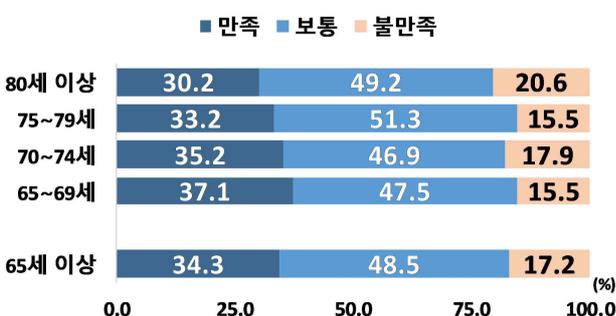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VI 주관적 웰빙

2022년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34.3%이고,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은 31.2%로 전년보다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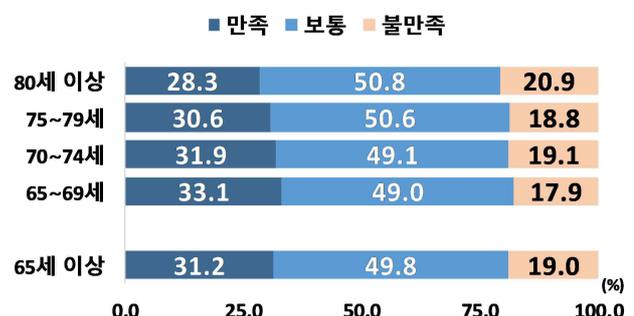
- '22년 65세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4.3%로 전년 대비 9.3%p 증가함(45쪽)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1.2%로 전년 대비 7.6%p 증가함(46쪽)

< 삶에 대한 만족도(2022) >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 성취에 대한 만족도(2022) >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2023 고령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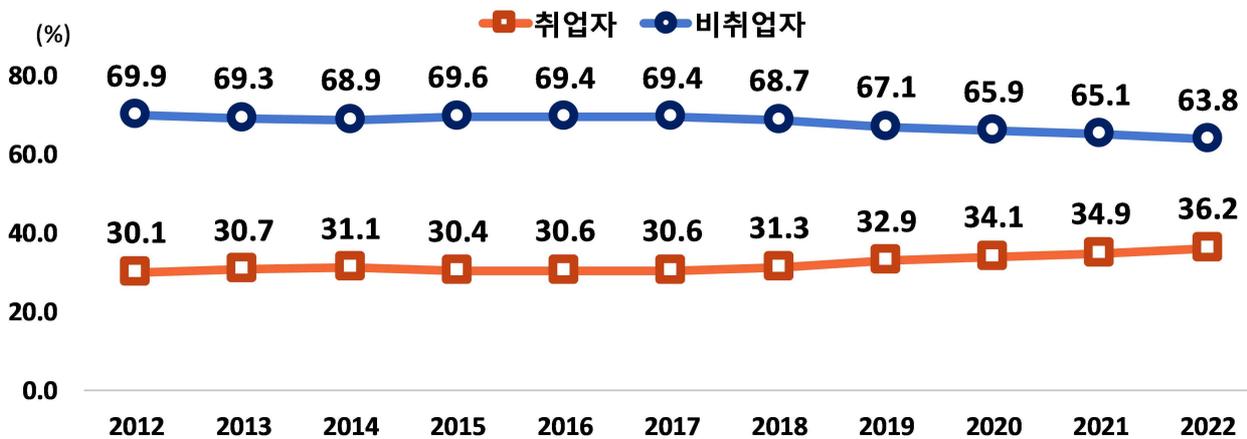
〈특별기획〉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인식

1. 경제활동인구 추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하는 고령자는 36.2%로 지난 10년간 6.1%p 증가함

- '22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5천 명이며, 고용률은 36.2%임
 -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12년 30.1%에서 '22년 36.2%로 지난 10년간 6.1%p 증가함
- '22년 65세 이상 비취업자 수는 5,762천 명으로 전체 고령자의 63.8%임
 - 65세 이상 고령자 중 비취업자는 '12년 69.9%에서 '22년 63.8%로 지속 감소함

〈 취업자·비취업자 비중 변화(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비취업자 비중 변화(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5세 이상											
전체	5,766	6,022	6,277	6,534	6,767	7,071	7,386	7,713	8,146	8,582	9,027
취업자 수	1,733	1,851	1,954	1,985	2,068	2,166	2,311	2,538	2,774	2,992	3,265
고용률 ¹⁾	30.1	30.7	31.1	30.4	30.6	30.6	31.3	32.9	34.1	34.9	36.2
비취업자 수 ²⁾	4,034	4,171	4,324	4,549	4,700	4,905	5,075	5,175	5,373	5,590	5,762
구성비	69.9	69.3	68.9	69.6	69.4	69.4	68.7	67.1	65.9	65.1	6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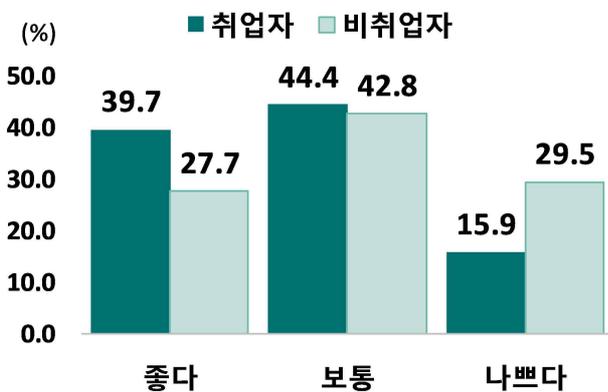
2) 비취업자에는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포함

2. 주관적 건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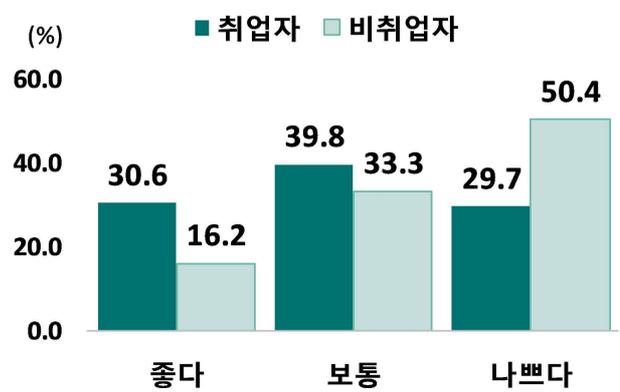
2022년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하는 고령자는 37.5%로, 비취업 고령자(21.9%)보다 15.6%p 높았음

- '22년 본인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37.5%로 비취업 고령자(21.9%)보다 15.6%p 높았음
 -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5~74세 12.0%p, 75세 이상 14.4%p 높았음
- '22년 본인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19.2%로 비취업 고령자(40.0%)보다 20.8%p 낮았음
 -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5~74세 13.6%p, 75세 이상 20.7%p 낮았음

< 주관적 건강평가(65~74세) >



< 주관적 건강평가(7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 주관적 건강평가(2022) >

(단위: %)

	취업여부 ¹⁾	건강 상태						
		좋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나쁘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65세 이상	전체	27.0	2.8	24.2	39.7	33.3	28.8	4.4
	취업자	37.5	3.4	34.1	43.3	19.2	18.3	0.9
	비취업자	21.9	2.5	19.4	38.0	40.0	33.9	6.1
65~74세	취업자	39.7	3.9	35.8	44.4	15.9	14.9	0.9
	비취업자	27.7	3.4	24.3	42.8	29.5	25.6	4.0
75세 이상	취업자	30.6	1.8	28.7	39.8	29.7	28.7	0.9
	비취업자	16.2	1.7	14.5	33.3	50.4	42.2	8.3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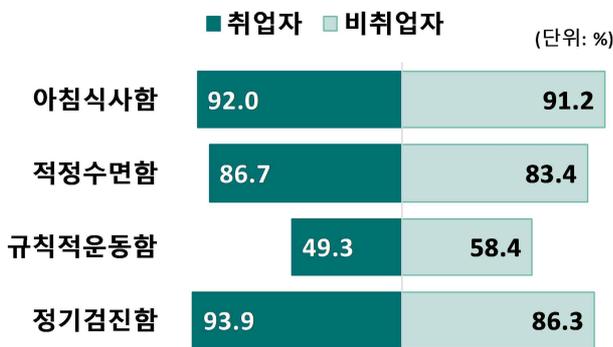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3. 건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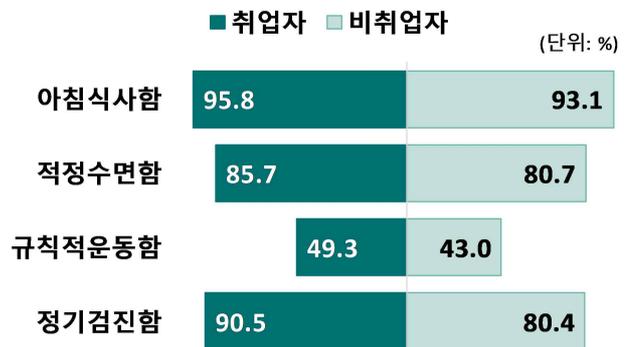
2022년 일하는 고령자는 아침 식사, 적정 수면,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이 높았고, 비취업 고령자는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높았음

- '22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아침 식사하기(92.9%), 적정 수면(86.5%), 정기 건강검진(93.1%) 실천율에서 비취업 고령자보다 높았음
-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65~74세는 비취업 고령자가, 75세 이상은 일하는 고령자가 높았음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아침 식사하기(95.8%), 적정 수면(85.7%), 규칙적 운동(49.3%), 정기 건강검진(90.5%) 실천율에서 비취업 고령자보다 높았음

< 건강관리(65~74세) >



< 건강관리(7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 건강관리(2022) >

	취업여부 ¹⁾	(단위: %)							
		아침 식사하기		적정 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함	실천 않음	실천함	실천 않음	실천함	실천 않음	실천함	실천 않음
65세 이상	전체	92.4	7.6	83.5	16.5	50.2	49.8	86.5	13.5
	취업자	92.9	7.1	86.5	13.5	49.3	50.7	93.1	6.9
	비취업자	92.1	7.9	82.1	17.9	50.7	49.3	83.4	16.6
65~74세	취업자	92.0	8.0	86.7	13.3	49.3	50.7	93.9	6.1
	비취업자	91.2	8.8	83.4	16.6	58.4	41.6	86.3	13.7
75세 이상	취업자	95.8	4.2	85.7	14.3	49.3	50.7	90.5	9.5
	비취업자	93.1	6.9	80.7	19.3	43.0	57.0	80.4	19.6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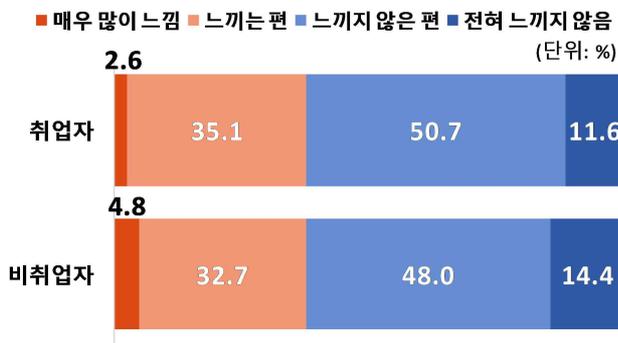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4.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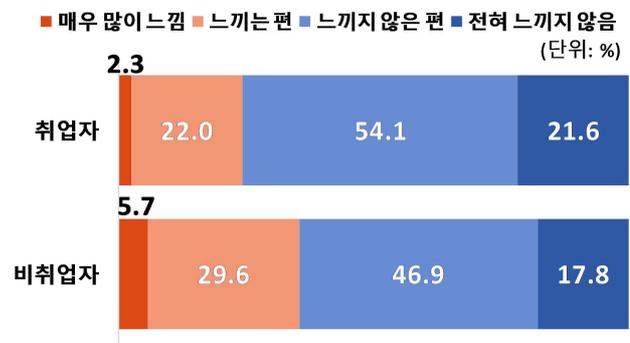
2022년 일하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중은 34.4%로 비취업 고령자(36.4%)보다 2.0%p 낮았음

- '22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중은 34.4%로 비취업 고령자(36.4%)보다 2.0%p 낮았음
 - 65~74세 일하는 고령자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중은 37.7%로 비취업 고령자(37.6%)보다 0.1%p 높았음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중은 24.3%로 비취업 고령자(35.3%)보다 11.0%p 낮았음

< 스트레스 정도(65~74세) >



< 스트레스 정도(7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 스트레스 정도(2022) >

(단위: %)

	취업여부 ¹⁾	느낀다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매우 많이 느낀다	느끼는 편이다			
65세 이상	전체	35.8	4.4	31.4	64.2	48.8	15.4
	취업자	34.4	2.5	31.9	65.6	51.5	14.0
	비취업자	36.4	5.3	31.2	63.6	47.4	16.1
65~74세	취업자	37.7	2.6	35.1	62.3	50.7	11.6
	비취업자	37.6	4.8	32.7	62.4	48.0	14.4
75세 이상	취업자	24.3	2.3	22.0	75.7	54.1	21.6
	비취업자	35.3	5.7	29.6	64.7	46.9	17.8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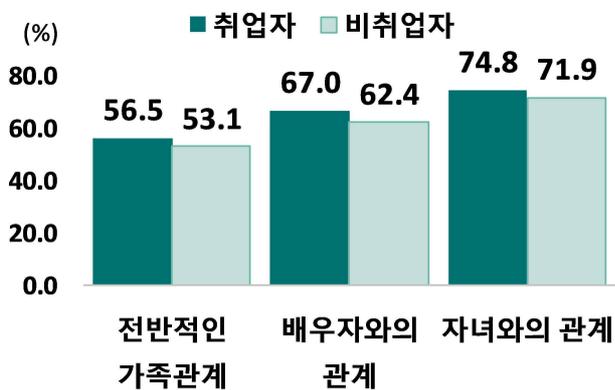
5. 가족관계 만족도

2022년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배우자, 자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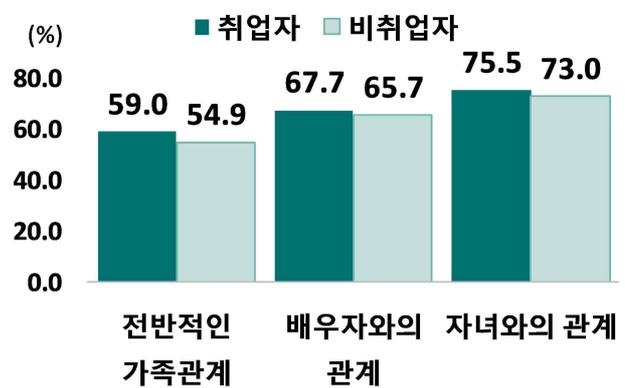
□ '22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배우자, 자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비취업 고령자보다 만족함

○ 65~74세, 75세 이상 모두 일하는 고령자가 배우자, 자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비취업 고령자보다 높았음

< 가족관계 만족도(65~74세)(만족) >



< 가족관계 만족도(75세 이상)(만족) >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 가족관계 만족도(2022) >

(단위: %)

	취업여부 ¹⁾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65세 이상	전체	55.0	41.4	3.6	65.0	28.2	6.8	73.3	22.8	3.9
	취업자	57.1	40.4	2.5	67.1	27.9	5.0	74.9	22.2	2.9
	비취업자	54.0	41.9	4.1	63.7	28.4	7.9	72.5	23.1	4.4
65~74세	취업자	56.5	40.6	2.9	67.0	28.0	5.0	74.8	22.1	3.1
	비취업자	53.1	42.8	4.2	62.4	28.8	8.7	71.9	23.9	4.1
75세 이상	취업자	59.0	39.7	1.4	67.7	27.7	4.6	75.5	22.4	2.1
	비취업자	54.9	41.1	4.0	65.7	27.7	6.6	73.0	22.3	4.7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2)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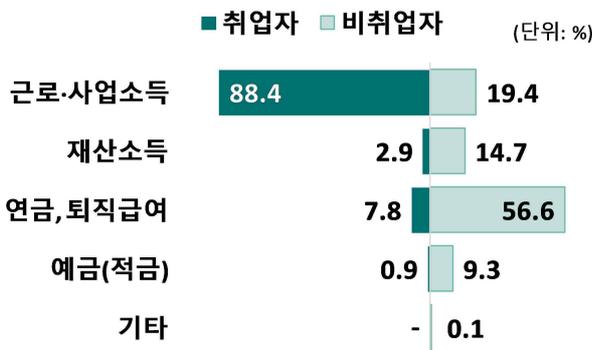
3)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6. 생활비 마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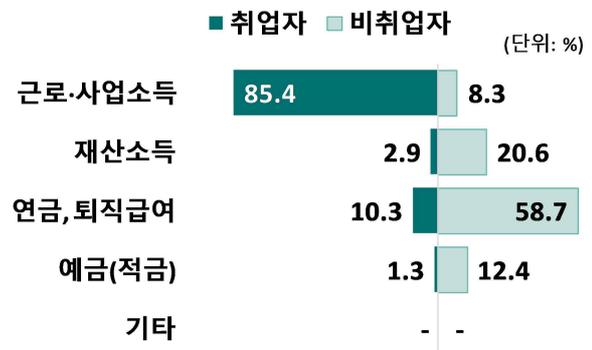
2021년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93.0%), 정부·사회단체(3.8%), 자녀·친척지원(3.2%) 순임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93.0%), 정부·사회단체(3.8%), 자녀·친척지원(3.2%) 순임
- 65세 이상 비취업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52.0%), 자녀·친척 지원(24.6%), 정부·사회단체(23.5%) 순임
- 65~74세 일하는 고령자의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은 96.6%이고, 비취업 고령자(66.3%)보다 30.3%p 높았음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은 82.4%이고, 비취업 고령자(37.6%)보다 44.8%p 높았음

< 생활비 마련 방법(65~74세) >



< 생활비 마련 방법(7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 생활비 마련 방법(2021) >

연령	취업여부 ¹⁾	본인· 배우자 부담	생활비 마련 방법					자녀· 친척지원	정부· 사회단체
			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기타		
65세 이상	전체	65.0	48.3	10.5	35.1	6.2	0.0	17.8	17.2
	취업자	93.0	87.8	2.9	8.3	1.0	-	3.2	3.8
	비취업자	52.0	15.4	16.8	57.4	10.5	0.0	24.6	23.5
65~74세	취업자	96.6	88.4	2.9	7.8	0.9	-	1.6	1.9
	비취업자	66.3	19.4	14.7	56.6	9.3	0.1	14.8	18.9
75세 이상	취업자	82.4	85.4	2.9	10.3	1.3	-	8.1	9.5
	비취업자	37.6	8.3	20.6	58.7	12.4	-	34.4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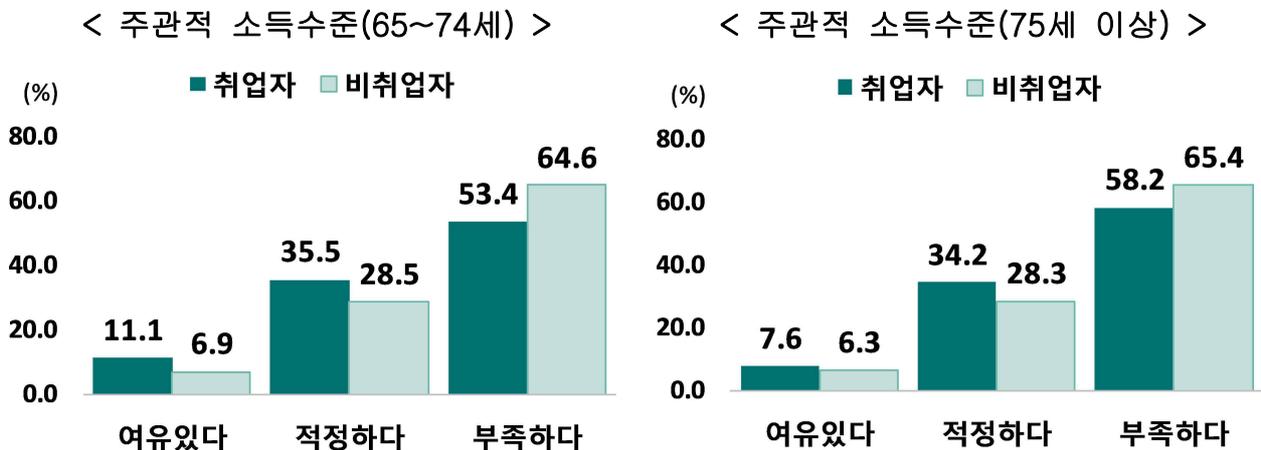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7. 주관적 소득수준

2021년 일하는 고령자 중 10.2%가 주관적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하였고, 비취업 고령자보다 3.6%p 높았음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 중 10.2%가 주관적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하였고, 비취업 고령자(6.6%)보다 3.6%p 높았음
- 65세 이상 비취업 고령자 중 65.0%가 주관적 소득수준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일하는 고령자(54.6%)보다 10.4%p 높았음
- 65~74세 일하는 고령자 중 11.1%,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 중 7.6%가 주관적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하였음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 주관적 소득수준(2021)¹⁾ >

(단위: %)

	취업여부 ²⁾	여유있다			적정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매우 여유있다	약간 여유있다	약간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65세 이상	전체	7.9	1.2	6.7	30.9	61.1	43.1	18.0
	취업자	10.2	1.8	8.4	35.2	54.6	42.5	12.1
	비취업자	6.6	0.9	5.7	28.4	65.0	43.5	21.5
65~74세	취업자	11.1	2.0	9.1	35.5	53.4	42.3	11.1
	비취업자	6.9	0.6	6.3	28.5	64.6	42.5	22.2
75세 이상	취업자	7.6	1.2	6.4	34.2	58.2	43.1	15.1
	비취업자	6.3	1.2	5.1	28.3	65.4	44.4	20.9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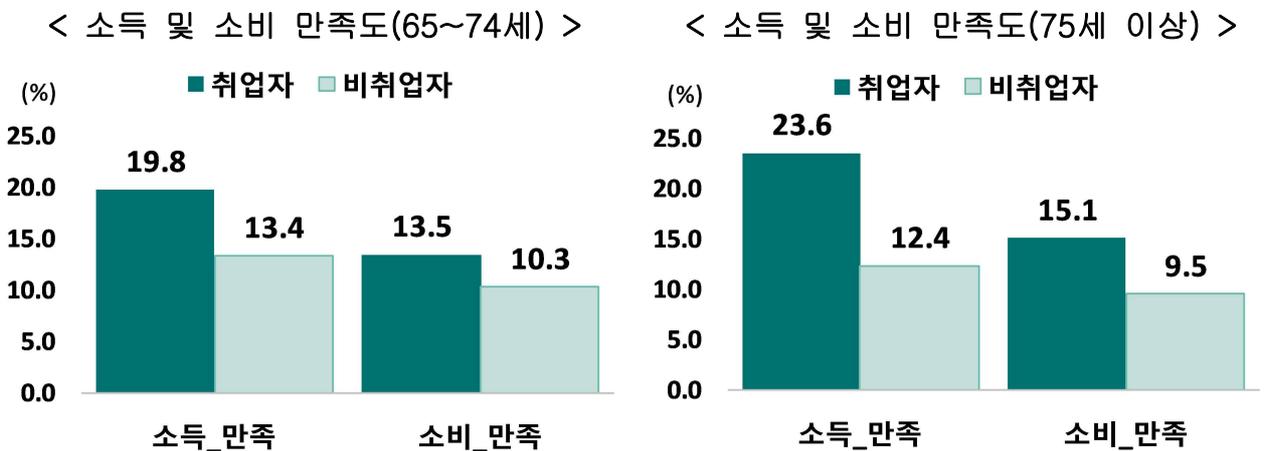
주: 1) 65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8. 소득 및 소비 만족도

2021년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 및 소비 만족도는 각각 20.7%, 13.9%로, 비취업 고령자보다 각각 7.8%p, 4.0%p 높았음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 및 소비 만족도는 각각 20.7%, 13.9%로 비취업 고령자보다 각각 7.8%p, 4.0%p 높았음
- '21년 65세 이상 비취업 고령자의 소득 및 소비 불만족도는 각각 47.3%, 41.8%로,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보다 각각 4.0%p, 8.9%p 높았음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 및 소비 만족도가 65~74세 일하는 고령자보다 높았음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 소득 및 소비 만족도(2021) >

(단위: %)

	취업여부 ¹⁾	소득 만족도 ²⁾			소비 만족도		
		만족 ³⁾	보통	불만족 ⁴⁾	만족 ³⁾	보통	불만족 ⁴⁾
65세 이상	전체	15.6	38.5	45.9	11.2	49.8	39.0
	취업자	20.7	36.0	43.3	13.9	53.2	32.9
	비취업자	12.9	39.8	47.3	9.9	48.2	41.8
65~74세	취업자	19.8	36.7	43.5	13.5	53.9	32.6
	비취업자	13.4	40.7	45.9	10.3	47.9	41.8
75세 이상	취업자	23.6	33.9	42.5	15.1	51.0	33.9
	비취업자	12.4	38.8	48.8	9.5	48.6	41.9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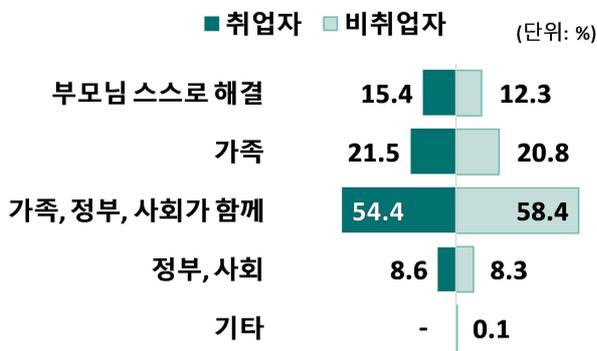
-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2)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 등이 모두 포함
 3)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4)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9.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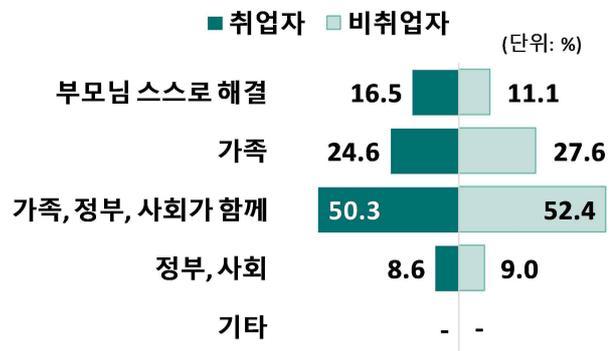
2022년 일하는 고령자, 비취업 고령자 모두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가족, 부모님 스스로 해결 순임

- '22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 및 비취업 고령자 모두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가족, 부모님 스스로 해결 순임
 - 65~74세 일하는 고령자의 54.4%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비취업 고령자보다 4.0%p 낮았음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16.5%는 부모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비취업 고령자 11.1%에 비해 5.4%p 높았음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65~74세) >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7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2022)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2022)					(단위: %)
	취업여부 ¹⁾	부모님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정부, 사회	기타	
65세 이상	전체	13.0	23.6	54.7	8.6	0.0	
	취업자	15.7	22.3	53.4	8.6	-	
	비취업자	11.7	24.2	55.4	8.6	0.1	
65~74세	취업자	15.4	21.5	54.4	8.6	-	
	비취업자	12.3	20.8	58.4	8.3	0.1	
75세 이상	취업자	16.5	24.6	50.3	8.6	-	
	비취업자	11.1	27.6	52.4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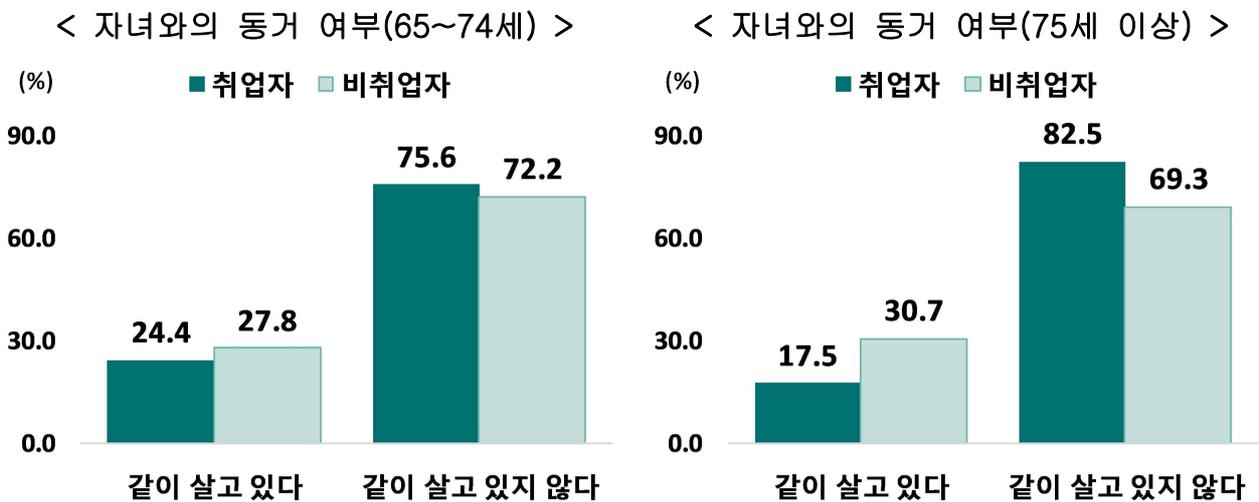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10. 자녀와의 동거 여부

2021년 일하는 고령자의 77.4%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고, 비취업 고령자(70.7%)보다 6.7%p 높았음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77.4%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고, 비취업 고령자(70.7%)보다 6.7%p 높았음
- 65~74세 일하는 고령자 중 75.6%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비취업 고령자(72.2%)보다 3.4%p 높았음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 중 82.5%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비취업 고령자(69.3%)보다 13.2%p 높았음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 자녀와의 동거 여부(2021) >

(단위: %)

	취업여부 ¹⁾	같이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지 않다
65세 이상	전체	27.2	72.8
	취업자	22.6	77.4
	비취업자	29.3	70.7
65~74세	취업자	24.4	75.6
	비취업자	27.8	72.2
75세 이상	취업자	17.5	82.5
	비취업자	30.7	69.3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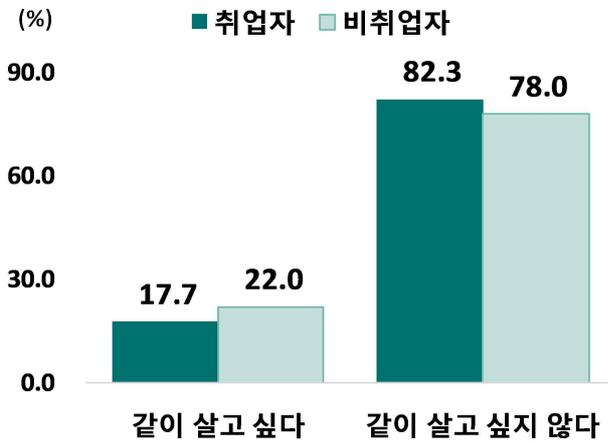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11. 향후 자녀와의 동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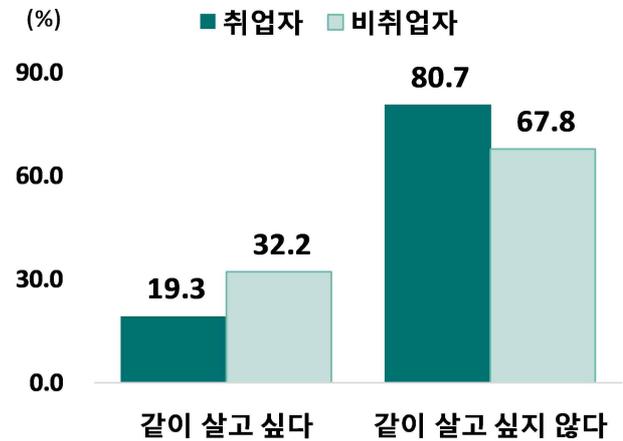
2021년 일하는 고령자 중 81.9%는 향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고, 비취업 고령자(72.9%)보다 9.0%p 높았음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 중 81.9%는 향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고, 비취업 고령자(72.9%)보다 9.0%p 높았음
- 65~74세 일하는 고령자 중 82.3%는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고, 비취업 고령자(78.0%)보다 4.3%p 높았음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 중 80.7%는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고, 비취업 고령자(67.8%)보다 12.9%p 높았음

< 향후 자녀와의 동거 의향(65~74세) >



< 향후 자녀와의 동거 의향(7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 향후 자녀와의 동거 의향(2021) >

(단위: %)

	취업여부 ¹⁾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동거 희망처		
				자기 집	양로·요양시설	기타
65세 이상	전체	24.3	75.7	89.7	10.2	0.1
	취업자	18.1	81.9	91.5	8.5	0.0
	비취업자	27.1	72.9	88.8	11.1	0.1
65~74세	취업자	17.7	82.3	92.0	8.0	0.0
	비취업자	22.0	78.0	89.7	10.1	0.1
75세 이상	취업자	19.3	80.7	89.8	10.2	-
	비취업자	32.2	67.8	87.7	12.2	0.1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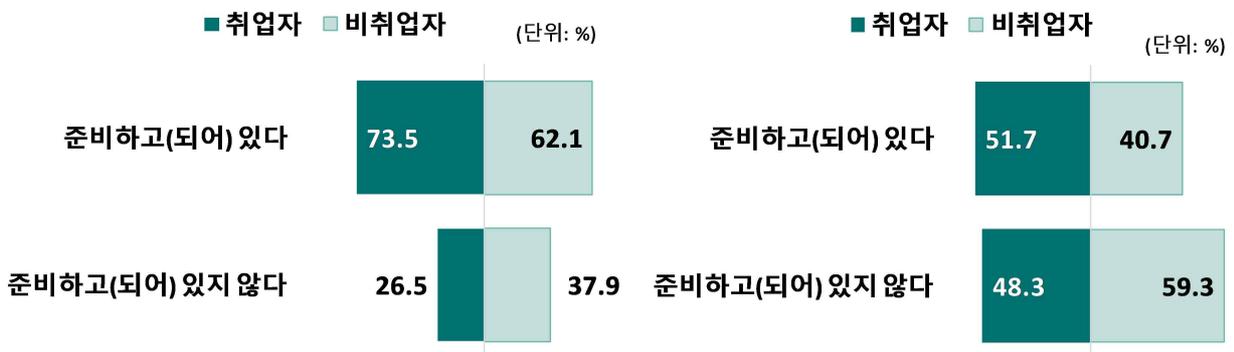
12. 노후 준비

2021년 일하는 고령자 68.1%, 비취업 고령자 51.4%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음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 중 68.1%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비취업 고령자(51.4%)보다 16.7%p 높았음
- 65~74세,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 모두 비취업 고령자보다 노후를 준비하는 비중이 높았음
- 65~74세, 75세 이상 비취업 고령자 중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 노후 준비(65~74세) >

< 노후 준비(7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 노후 준비(2021) >

(단위: %)

	취업여부 ¹⁾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	아직생각 하고있지 않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할 능력이 없다	자녀에게 의지한다	기타
	취업자	68.1	31.9	6.0	19.8	58.4	15.8	-
	비취업자	51.4	48.6	2.5	4.7	59.4	33.0	0.3
65~74세	취업자	73.5	26.5	7.3	29.2	56.1	7.4	-
	비취업자	62.1	37.9	3.7	9.4	66.9	19.9	0.0
75세 이상	취업자	51.7	48.3	3.9	4.3	62.1	29.7	-
	비취업자	40.7	59.3	1.8	1.7	54.6	41.5	0.5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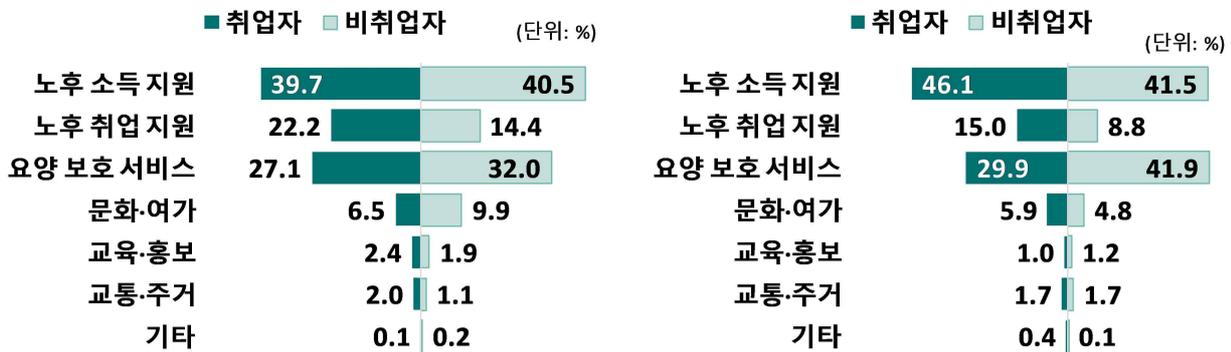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13.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은 노후 소득지원, 의료·요양보호 서비스, 노후 취업지원 순임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은 노후 소득지원, 의료·요양보호 서비스, 노후 취업지원 순임
- 65~74세 일하는 고령자는 노후 소득지원(39.7%), 의료·요양보호 서비스(27.1%), 비취업 고령자는 노후 소득지원(40.5%),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2.0%) 순임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노후 소득지원(46.1%), 의료·요양보호 서비스(29.9%), 비취업 고령자는 의료·요양보호 서비스(41.9%), 노후 소득지원(41.5%) 순임

<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65~74세) > <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7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2021) >

(단위: %)

연령	취업여부 ¹⁾	노후 소득지원	노후 취업지원	의료·요양보호 서비스	문화·여가 복지 서비스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교통·주거환경 조성	기타
65세 이상	전체	41.1	14.4	34.0	7.0	1.7	1.6	0.2
	취업자	41.3	20.4	27.8	6.3	2.1	1.9	0.2
	비취업자	41.0	11.6	36.9	7.4	1.5	1.4	0.1
65~74세	취업자	39.7	22.2	27.1	6.5	2.4	2.0	0.1
	비취업자	40.5	14.4	32.0	9.9	1.9	1.1	0.2
75세 이상	취업자	46.1	15.0	29.9	5.9	1.0	1.7	0.4
	비취업자	41.5	8.8	41.9	4.8	1.2	1.7	0.1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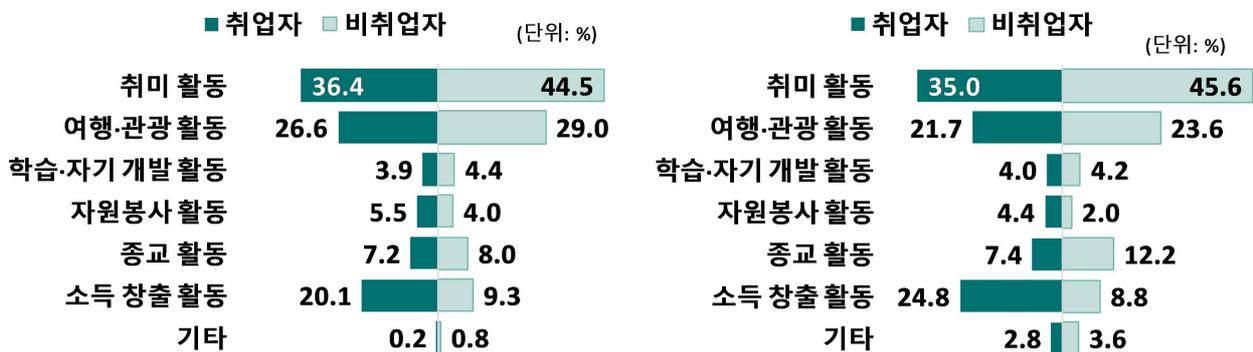
14.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2021년 일하는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여행·관광, 소득 창출, 비취업 고령자는 취미, 여행·관광, 종교 활동 순임

□ '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36.1%), 여행·관광(25.4%), 소득 창출(21.3%), 비취업 고령자는 취미(45.1%), 여행·관광(26.3%), 종교 활동(10.1%) 순임

○ 일하는 고령자의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65~74세에게서는 취미, 여행·관광, 소득 창출, 75세 이상에게서는 취미, 소득 창출, 여행·관광 활동 순임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65~74세) >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7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2021) >

(단위: %)

연령	취업여부 ¹⁾	취미 활동	여행·관광 활동	학습·자기 개발 활동	자원봉사 활동	종교 활동	소득 창출 활동	기타
65세 이상	전체	42.2	26.0	4.2	3.7	9.2	13.0	1.8
	취업자	36.1	25.4	3.9	5.2	7.3	21.3	0.9
	비취업자	45.1	26.3	4.3	3.0	10.1	9.1	2.2
65~74세	취업자	36.4	26.6	3.9	5.5	7.2	20.1	0.2
	비취업자	44.5	29.0	4.4	4.0	8.0	9.3	0.8
75세 이상	취업자	35.0	21.7	4.0	4.4	7.4	24.8	2.8
	비취업자	45.6	23.6	4.2	2.0	12.2	8.8	3.6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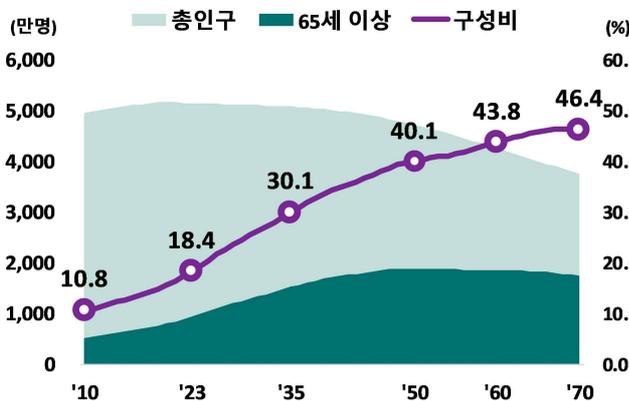
I. 인구 · 가구

1.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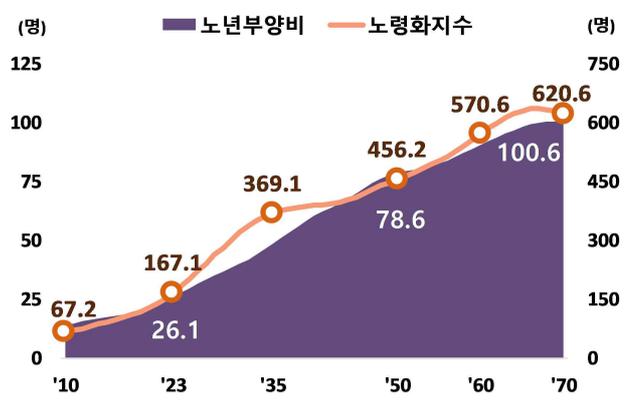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망

- '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 명임
-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35년 30%, '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3년 26.1명이며, '35년에는 48.6명, '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명)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20	51,836	8,152	15.7	21.8	129.3
2023	51,558	9,500	18.4	26.1	167.1
2025	51,448	10,585	20.6	29.7	201.5
2030	51,199	13,056	25.5	38.6	301.6
2035	50,869	15,289	30.1	48.6	369.1
2040	50,193	17,245	34.4	60.5	389.5
2050	47,359	19,004	40.1	78.6	456.2
2060	42,617	18,683	43.8	90.4	570.6
2070	37,656	17,473	46.4	100.6	620.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표 (51쪽) 참조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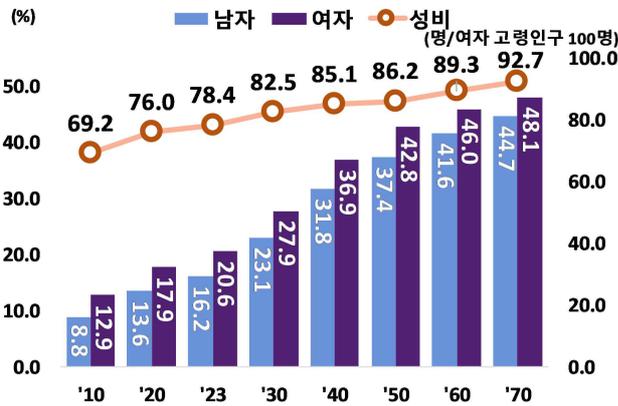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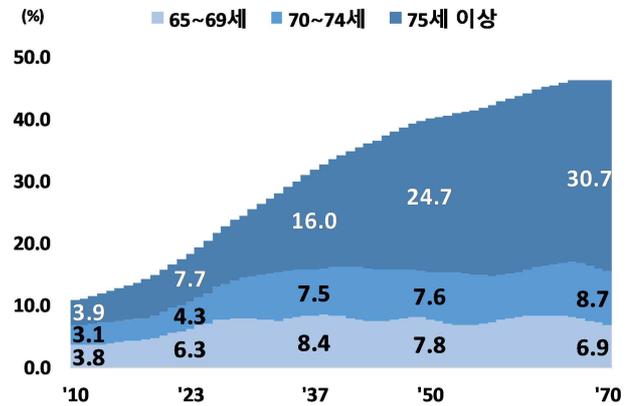
2023년 성별 고령인구 비중은 여자 20.6%, 남자 16.2%임

- '23년 성별로 고령인구 비중을 보면, 여자 20.6%, 남자 16.2%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p 높음
 - 65세 이상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남자 고령인구는 '23년 78.4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50년 86.2명으로 전망됨
- '23년 전체 인구의 18.4%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65~69세 6.3%, 70~74세 4.3%, 75세 이상 7.7%임
 - '23년 65~74세 인구는 551만 4천 명으로 75세 이상 인구보다 152만 8천 명 더 많으나, '37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명)

	65세 이상	성별				성비 ²⁾	연령별					
		남자	고령 비중 ¹⁾	여자	고령 비중 ¹⁾		65~69세	구성비 ³⁾	70~74세	구성비 ³⁾	75세 이상	구성비 ³⁾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1,878	3.8	1,540	3.1	1,948	3.9
2020	8,152	3,521	13.6	4,631	17.9	76.0	2,662	5.1	1,990	3.8	3,499	6.8
2023	9,500	4,174	16.2	5,326	20.6	78.4	3,274	6.3	2,240	4.3	3,986	7.7
2025	10,585	4,694	18.3	5,891	22.9	79.7	3,685	7.2	2,533	4.9	4,367	8.5
2030	13,056	5,901	23.1	7,156	27.9	82.5	4,027	7.9	3,532	6.9	5,497	10.7
2037	16,177	7,414	29.4	8,763	34.4	84.6	4,272	8.4	3,789	7.5	8,116	16.0
2040	17,245	7,928	31.8	9,317	36.9	85.1	4,172	8.3	3,980	7.9	9,093	18.1
2050	19,004	8,795	37.4	10,209	42.8	86.2	3,709	7.8	3,619	7.6	11,676	24.7
2060	18,683	8,816	41.6	9,867	46.0	89.3	3,500	8.2	3,099	7.3	12,084	28.4
2070	17,473	8,403	44.7	9,070	48.1	92.7	2,614	6.9	3,288	8.7	11,571	30.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표 (52~53쪽) 참조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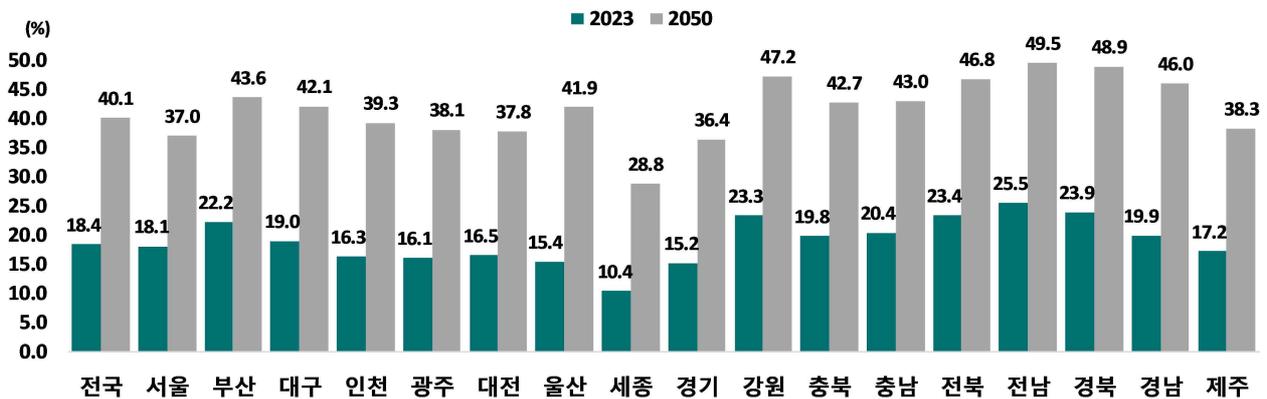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2. 지역별 고령인구

2023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5%),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0.4%)임

- '23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6곳임
- '28년에는 세종(13.4%)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8년에는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함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 2020~2050」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위)

	2023			2028			2030			2040			2050		
	고령인구 비중	순위													
전국	9,500	18.4	-	12,200	23.8	-	13,056	25.5	-	17,245	34.4	-	19,004	40.1	-
서울	1,692	18.1	10	2,074	22.9	10	2,188	24.5	10	2,728	31.9	14	2,930	37.0	15
부산	725	22.2	5	887	28.4	5	925	30.1	5	1,085	38.4	6	1,096	43.6	6
대구	445	19.0	9	560	25.1	9	594	27.0	9	741	36.7	7	760	42.1	9
인천	482	16.3	13	656	22.2	11	714	24.1	12	980	33.2	11	1,105	39.3	11
광주	234	16.1	14	299	21.1	15	319	22.8	15	424	32.0	13	462	38.1	13
대전	241	16.5	12	309	21.9	13	330	23.6	13	433	32.3	12	471	37.8	14
울산	170	15.4	15	234	22.1	12	255	24.4	11	339	35.6	10	354	41.9	10
세종	41	10.4	17	63	13.4	17	72	14.6	17	129	22.0	17	182	28.8	17
경기	2,093	15.2	16	2,877	20.2	16	3,152	21.9	16	4,511	30.5	16	5,220	36.4	16
강원	355	23.3	4	454	29.8	3	484	31.6	3	636	41.4	3	700	47.2	3
충북	324	19.8	8	420	25.5	7	450	27.2	7	610	36.6	8	685	42.7	8
충남	445	20.4	6	565	25.5	7	606	27.2	7	820	36.4	9	943	43.0	7
전북	413	23.4	3	498	29.2	4	523	31.0	4	656	40.9	4	698	46.8	4
전남	447	25.5	1	532	31.1	1	559	32.9	1	702	43.2	1	754	49.5	1
경북	625	23.9	2	776	30.2	2	822	32.2	2	1,040	42.6	2	1,102	48.9	2
경남	651	19.9	7	843	26.2	6	899	28.2	6	1,183	39.1	5	1,275	46.0	5
제주	117	17.2	11	151	21.6	14	163	23.1	14	229	31.9	14	268	38.3	1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 202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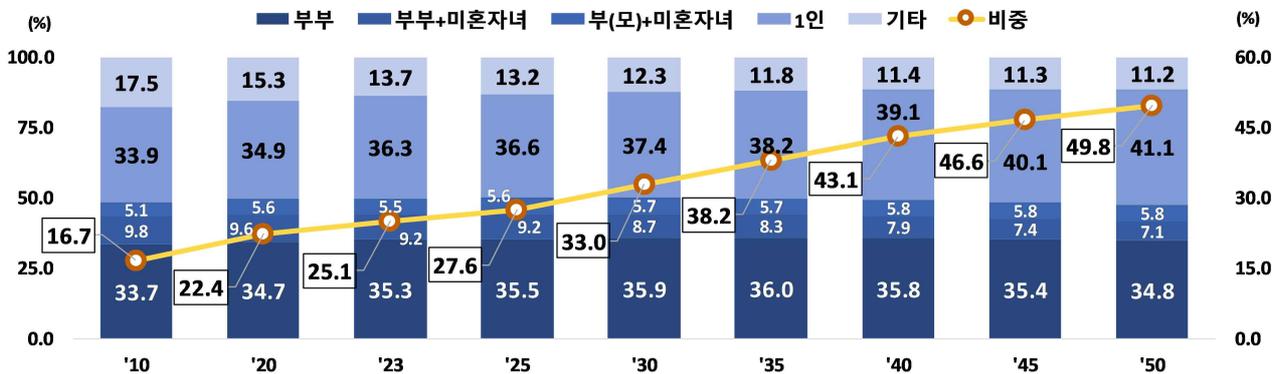
☞ 통계표 (54~55쪽) 참조

3. 고령자 가구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1%임

- '23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49만 1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1%임
- '23년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고, 부부(35.3%), 부부+미혼자녀(9.2%), 부(모)+미혼자녀(5.5%) 순임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39년에는 천만 가구를 넘고, '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49.8%)으로 전망됨

< 고령자 가구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 고령자 가구 >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 ¹⁾	비중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부부	구성비	부부+미혼자녀	구성비	부(모)+미혼자녀	구성비	1인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20	20,731	4,640	22.4	1,610	34.7	443	9.6	259	5.6	1,618	34.9	710	15.3
2023	21,834	5,491	25.1	1,936	35.3	505	9.2	305	5.5	1,993	36.3	752	13.7
2025	22,309	6,147	27.6	2,180	35.5	563	9.2	344	5.6	2,248	36.6	812	13.2
2030	23,180	7,654	33.0	2,746	35.9	669	8.7	435	5.7	2,861	37.4	943	12.3
2035	23,709	9,054	38.2	3,263	36.0	751	8.3	518	5.7	3,458	38.2	1,064	11.8
2039	23,870	10,103	42.3	3,632	36.0	808	8.0	581	5.8	3,925	38.9	1,157	11.4
2040	23,866	10,290	43.1	3,688	35.8	811	7.9	592	5.8	4,023	39.1	1,176	11.4
2045	23,572	10,984	46.6	3,885	35.4	815	7.4	632	5.8	4,410	40.1	1,243	11.3
2050	22,849	11,375	49.8	3,958	34.8	812	7.1	658	5.8	4,671	41.1	1,276	11.2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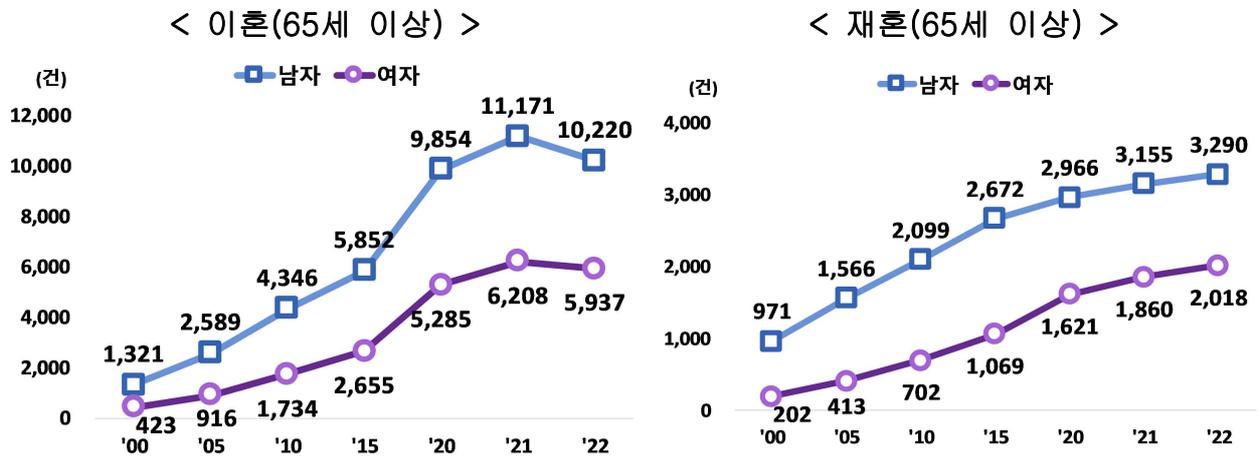
☞ 통계표 (56쪽) 참조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이혼 및 재혼

2022년 65세 이상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이혼은 감소하였으나, 재혼은 증가함

- '22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8.3%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8.5%, 4.4% 감소함
 - 전체 이혼 건수에서 65세 이상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0%, 6.4%이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22년 전체 재혼 건수는 남자는 0.5% 증가, 여자는 1.7%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4.3%, 8.5% 증가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이혼 및 재혼 >

(단위: 건, %)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2000	119,455	1,321	1.1	423	0.4	43,370	971	48,132	202
2005	128,035	2,589	2.0	916	0.7	59,662	1,566	66,587	413
2010	116,858	4,346	3.7	1,734	1.5	53,043	2,099	57,451	702
2015	109,153	5,852	5.4	2,655	2.4	46,388	2,672	52,747	1,069
2020	106,500	9,854	9.3	5,285	5.0	33,261	2,966	38,064	1,621
2021	101,673	11,171	11.0	6,208	6.1	31,059	3,155	35,597	1,860
2022	93,232	10,220	11.0	5,937	6.4	31,204	3,290	35,000	2,018
전년대비 증감률	-8.3	-8.5		-4.4		0.5	4.3	-1.7	8.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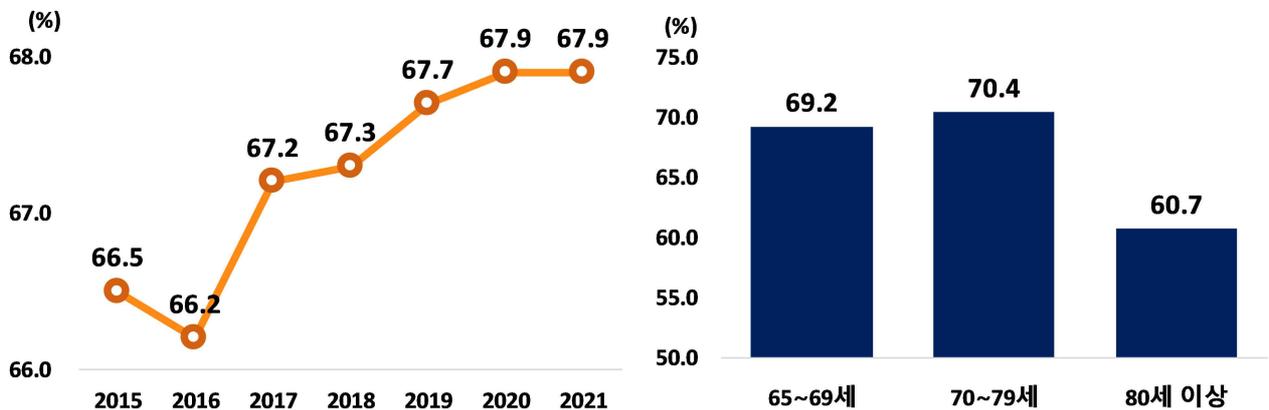
☞ 통계표 (57쪽) 참조

5. 주택 소유율

2021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67.9%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1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67.9%는 주택을 소유하고 비중은 전년과 동일
 -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70.4%로 가장 높고, 65~69세(69.2%), 80세 이상(60.7%) 순임
 - '18년까지 65~69세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70대, 8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높았으나, '20년 이후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았음

<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 > < 가구주 연령별 주택 소유율(2021) >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가구의 주택 소유율¹⁾²⁾ >

(단위: %)

연도	65세 이상	가구주 연령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6.5	71.1	67.8	54.4
2016	66.2	70.3	67.8	54.9
2017	67.2	70.5	69.1	57.2
2018	67.3	70.2	69.4	58.1
2019	67.7	70.0	70.0	59.3
2020	67.9	69.6	70.3	60.3
2021	67.9	69.2	70.4	60.7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인구총조사」

☞ 통계표 (58쪽) 참조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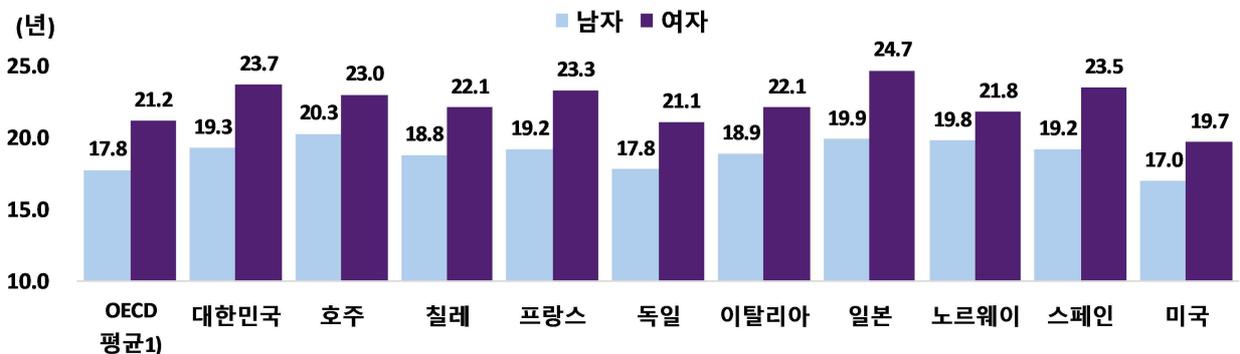
II. 건강

6. 기대여명

2021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6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4년임

- '21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6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4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년씩 늘어남
-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7년으로 남자(19.3년)보다 4.4년 더 길고, 7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14.9년으로 남자(11.7년)보다 3.2년 더 길었음
- '21년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2.5년 높으며, 남자는 1.5년 더 높음

<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여명(65세, 2021) >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3.9.1. 기준)

주: 1) 2021년 자료가 공표된 OECD 33개국의 산술평균임

< 연령별 기대여명^{1) 2)} >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2000	16.4	14.3	18.2	3.9	9.8	8.5	10.7	2.2
2005	17.7	15.5	19.6	4.0	10.6	9.2	11.6	2.4
2010	19.1	16.8	21.2	4.4	11.6	10.0	12.9	2.9
2015	20.3	18.2	22.4	4.2	12.4	10.8	13.7	2.9
2019	21.3	19.1	23.4	4.3	13.2	11.5	14.6	3.1
2020	21.5	19.2	23.6	4.3	13.3	11.6	14.7	3.1
2021	21.6	19.3	23.7	4.4	13.4	11.7	14.9	3.2

자료: 통계청, 「생명표」

☞ 통계표 (59쪽) 참조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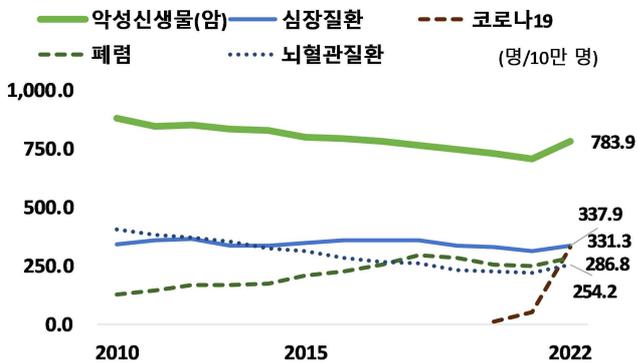
2) 2016.12.2. 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으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7. 사망원인별 사망률

2022년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질환 순임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악성신생물(암) 783.9명, 심장질환 337.9명, 코로나19 331.3명, 폐렴 286.8명 순임
-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수는 '20년 10.5명, '21년 50.7명, '22년 331.3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령자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신생물(암) 4.8배, 심장질환 5.1배, 코로나19 5.4배, 폐렴 5.5배, 뇌혈관질환 5.1배 수준임

< 고령자 사망원인별 사망률 순위(2022) >



< 고령자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사망원인별 사망률¹⁾²⁾ >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2000	2010	2020	2021	2022
전체 인구	1순위	악성신생물(암) (122.4)	악성신생물(암) (144.4)	악성신생물(암) (160.1)	악성신생물(암) (161.1)	악성신생물(암) (162.7)
	2순위	뇌혈관질환 (73.6)	뇌혈관질환 (53.2)	심장질환 (63.0)	심장질환 (61.5)	심장질환 (65.8)
	3순위	심장질환 (38.7)	심장질환 (46.9)	폐렴 (43.3)	폐렴 (44.4)	코로나19 (61.0)
	4순위	간질환 (23.0)	고의적 자해(자살) (31.2)	뇌혈관질환 (42.6)	뇌혈관질환 (44.0)	폐렴 (52.1)
	5순위	당뇨병 (22.7)	당뇨병 (20.7)	고의적 자해(자살) (25.7)	고의적 자해(자살) (26.0)	뇌혈관질환 (49.6)
고령인구 (65세 이상)	1순위	악성신생물(암) (937.3)	악성신생물(암) (882.4)	악성신생물(암) (733.3)	악성신생물(암) (709.3)	악성신생물(암) (783.9)
	2순위	뇌혈관질환 (789.9)	뇌혈관질환 (409.4)	심장질환 (331.9)	심장질환 (312.0)	심장질환 (337.9)
	3순위	심장질환 (363.5)	심장질환 (344.0)	폐렴 (257.5)	폐렴 (250.3)	코로나19 (331.3)
	4순위	당뇨병 (220.0)	당뇨병 (153.1)	뇌혈관질환 (225.3)	뇌혈관질환 (220.6)	폐렴 (286.8)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210.3)	폐렴 (127.6)	알츠하이머병 (91.4)	알츠하이머병 (92.0)	뇌혈관질환 (254.2)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통계표 (60~6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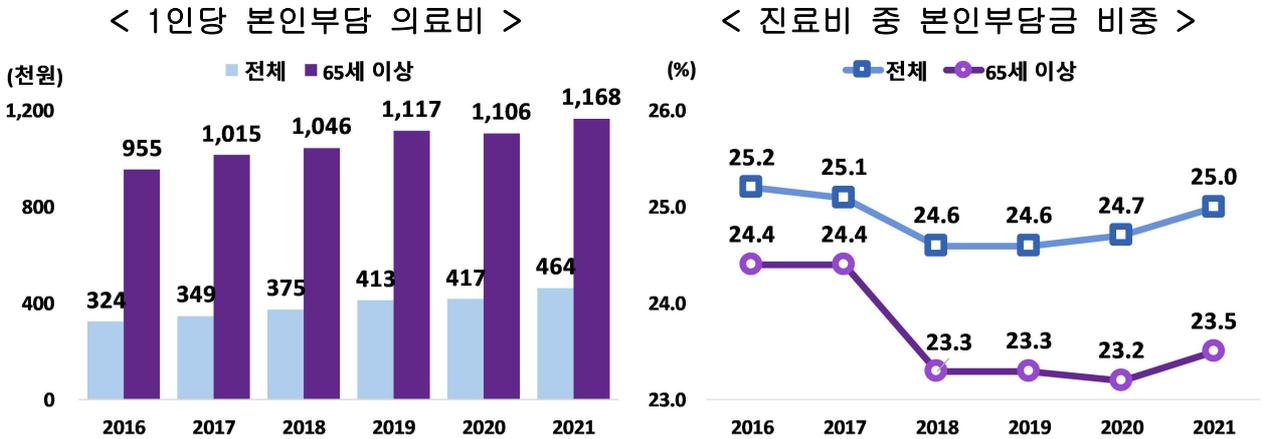
주: 1)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2) 만성하기도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8. 본인부담 의료비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97만 4천 원,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116만 8천 원임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97만 4천 원, 본인부담금은 11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만 5천 원, 6만 2천 원 증가함
- '21년 전체 인구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25.0%, 65세 이상 고령자는 23.5%로 전년 대비 각각 0.3%p 증가함
- 1인당 본인부담금은 65~74세 968천 원으로 전년 대비 64천 원 증가하였고, 75세 이상 1,458천 원으로 전년 대비 65천 원 증가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

(단위: 천 원, %)

	전체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1인당 진료비 ¹⁾	1인당 본인부담금 ²⁾	본인부담금 비중 ⁴⁾	1인당 진료비 ¹⁾	1인당 본인부담금 ²⁾	본인부담금 비중 ⁴⁾	1인당 진료비 ¹⁾	1인당 본인부담금 ²⁾	본인부담금 비중 ⁴⁾	1인당 진료비 ¹⁾	1인당 본인부담금 ²⁾	본인부담금 비중 ⁴⁾
2014	1,092	273	25.0	3,326	784	23.6	2,728	626	23.0	4,257	1,030	24.2
2015	1,164	293	25.2	3,573	859	24.0	2,901	685	23.6	4,587	1,121	24.4
2016	1,284	324	25.2	3,921	955	24.4	3,205	784	24.5	4,941	1,200	24.3
2017	1,389	349	25.1	4,162	1,015	24.4	3,372	838	24.8	5,233	1,255	24.0
2018	1,526	375	24.6	4,487	1,046	23.3	3,614	849	23.5	5,659	1,310	23.2
2019	1,676	413	24.6	4,796	1,117	23.3	3,881	912	23.5	6,039	1,395	23.1
2020	1,689	417	24.7	4,759	1,106	23.2	3,851	904	23.5	6,049	1,393	23.0
2021	1,856	464	25.0	4,974	1,168	23.5	4,070	968	23.8	6,284	1,458	23.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통계표 (62~63쪽) 참조

주: 1) 1인당 진료비¹⁾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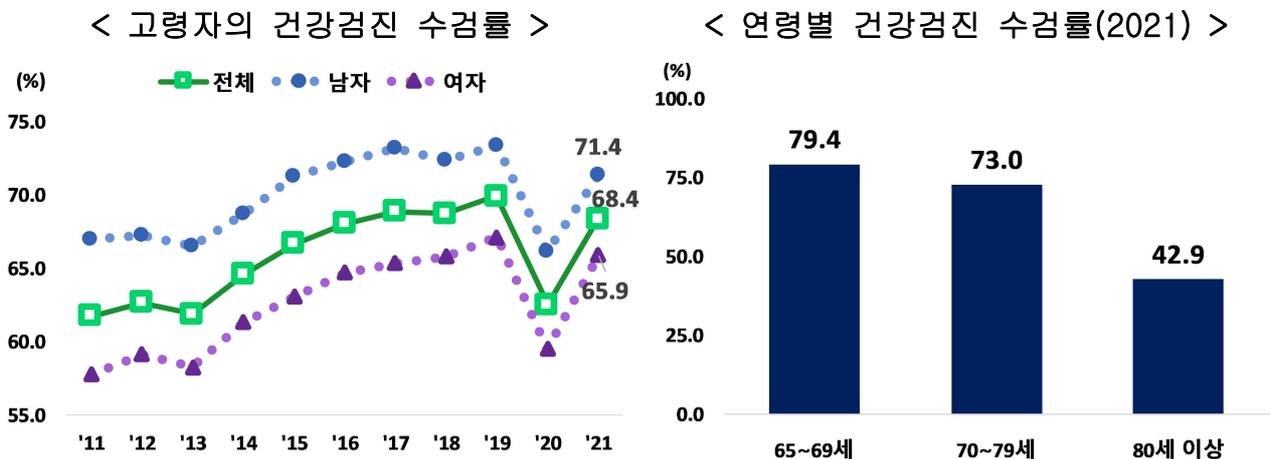
3)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 ÷ 진료비} × 100

※ 2021년 연도 말 적용인구(65세 이상: 8,319,978명, 65~74세: 4,921,695명, 75세 이상: 3,398,283명)

9. 건강검진 수검률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8.4%로 전년 대비 5.9%p 증가함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8.4%로 전년 대비 5.9%p 증가함
-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은 65~69세가 79.4%로 가장 높았고, 70~79세 (73.0%), 80세 이상(42.9%)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음
 - 전년 대비 건강검진 수검률은 65~69세 5.4%p, 70~79세 6.6%p, 80대 이상 6.0%p 증가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건강검진 수검률¹⁾ >

(단위: %)

연도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2011	61.8	67.0	57.8	77.2	78.3	76.0	65.0	67.8	62.9	35.4	44.0	31.4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2020	62.5	66.2	59.5	74.0	73.4	74.6	66.4	68.4	64.7	36.9	45.1	32.4
2021	68.4	71.4	65.9	79.4	78.2	80.5	73.0	74.0	72.0	42.9	51.3	38.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통계표 (6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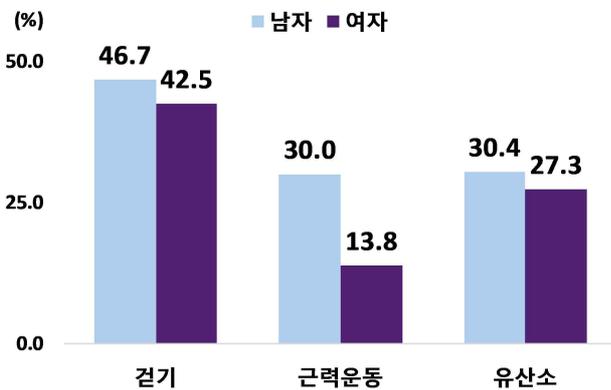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일반검진 수검인원 ÷ 일반검진 대상인원) × 100

10. 운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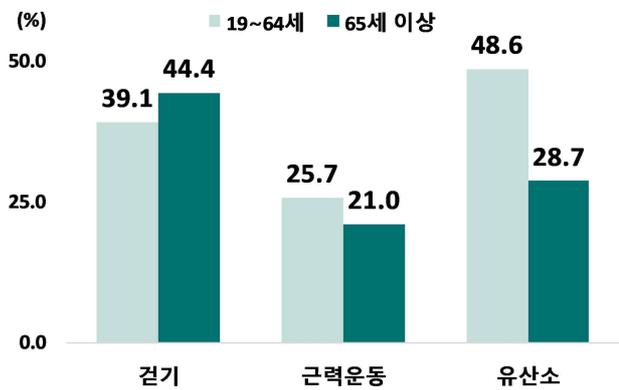
2021년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44.4%, 유산소 신체활동 28.7%, 근력운동 21.0% 순임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44.4%), 유산소 신체활동(28.7%), 근력운동(21.0%) 순이고,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은 전년 대비 각각 4.5%p, 1.5%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운동 실천율이 여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근력운동(16.2%p), 걷기(4.2%p), 유산소 신체활동(3.1%p) 차이는 보였음
- 65세 이상 고령자는 19~64세보다 걷기 실천율은 5.3%p 높았으나,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실천율은 각각 19.9%p, 4.7%p 낮았음

< 고령자의 성별 운동 실천율(2021) >



< 연령별 운동 실천율(2021)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운동 실천율 >

(단위: %)

	걷기 실천율 ¹⁾				근력운동 실천율 ²⁾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³⁾			
	19~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19~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19~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2014	41.4	41.3	47.6	36.7	21.5	16.8	28.5	8.3	59.8	41.1	50.9	33.6
2015	41.5	35.8	41.1	32.0	23.1	17.7	30.7	8.3	54.2	33.7	41.7	27.9
2016	39.8	35.4	39.0	32.7	21.7	15.2	24.7	8.4	50.3	34.4	43.4	27.9
2017	39.2	35.7	42.2	30.8	22.1	17.5	28.8	9.0	49.8	29.4	32.6	26.9
2018	39.7	37.3	46.1	30.8	23.1	18.3	30.3	9.5	48.3	28.1	33.4	24.3
2019	43.4	39.9	44.3	36.5	24.3	18.3	30.5	8.7	48.2	33.0	36.6	30.1
2020	38.6	42.3	44.8	40.2	24.4	22.5	35.0	12.5	46.1	33.2	40.8	27.0
2021	39.1	44.4	46.7	42.5	25.7	21.0	30.0	13.8	48.6	28.7	30.4	27.3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통계표 (6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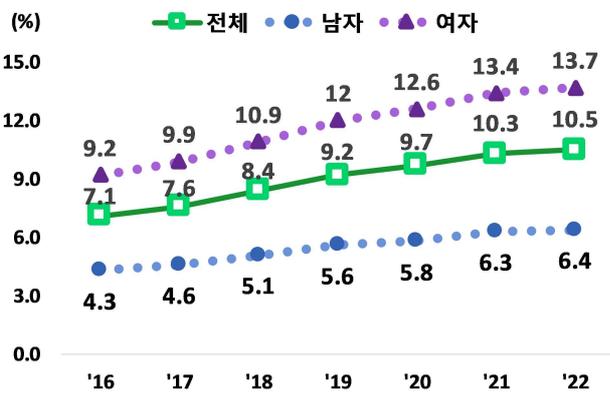
- 주: 1)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2)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3)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1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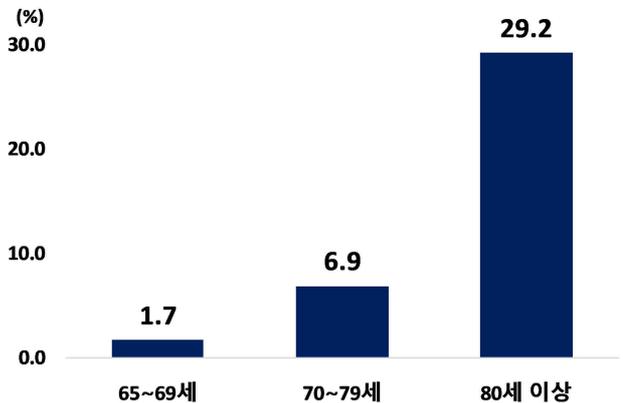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5%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함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5%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성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여자가 13.7%로 남자(6.4%)의 2.1배 수준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65~69세는 1.7%, 70~79세는 6.9%이며 80세 이상은 29.2%로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함

<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 연령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2022)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¹⁾²⁾³⁾ >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2021	10.3	6.3	13.4	1.7	1.8	1.6	7.1	5.3	8.6	28.5	17.9	34.0
2022	10.5	6.4	13.7	1.7	1.9	1.6	6.9	5.3	8.3	29.2	18.2	34.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통계표 (66쪽) 참조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12. 노인 복지시설

2022년 노인 복지시설은 8만 9,698개소로 전년 대비 5.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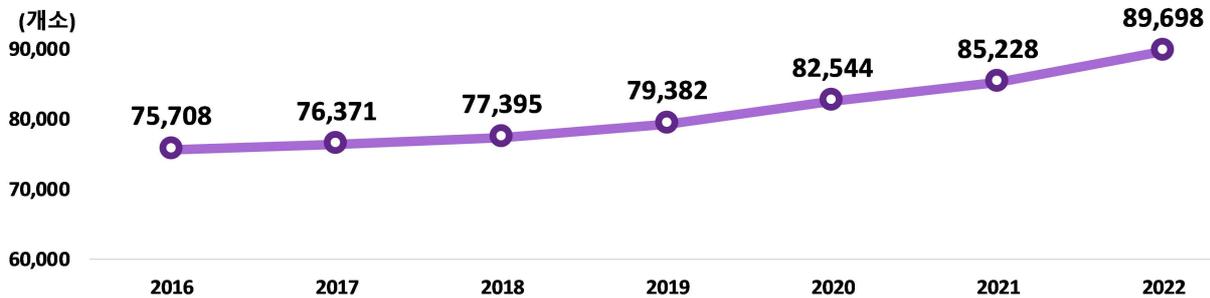
□ '22년 노인 복지시설 수는 8만 9,698개소로 전년 대비 5.2% 증가함

○ 노인 복지시설 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2년 1만 3,272개소이며, 전년 대비 3,288개소(32.9%) 증가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2년 308개소이며, 전년 대비 29개소(8.6%) 감소함

< 노인 복지시설 수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 복지시설 수 >

(단위: 개소)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85,228	89,698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계	425	404	390	382	352	337	308
	양로시설	265	252	238	232	209	192	180
	노인공동생활가정	128	119	117	115	107	107	89
	노인복지주택	32	33	35	35	36	38	39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계	5,163	5,242	5,287	5,529	5,725	5,821	6,069
	노인요양시설	3,136	3,261	3,390	3,595	3,844	4,057	4,34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27	1,981	1,897	1,934	1,881	1,764	1,723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계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68,823	69,786
	노인복지관	350	364	385	391	398	357	366
	경로당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67,211	68,180
재가노인 복지시설 ¹⁾	노인교실	1,393	1,356	1,342	1,285	1,291	1,255	1,240
	소계	3,168	3,216	3,494	4,821	7,212	9,984	13,272
	방문요양서비스	1,009	1,001	1,051	1,513	2,656	4,156	5,808
	주야간보호서비스	1,086	1,174	1,312	1,816	2,321	2,618	3,035
	단기보호서비스	95	80	73	78	73	69	70
	방문목욕서비스	588	609	650	942	1,596	2,415	3,394
	방문간호서비스 ²⁾	-	10	21	60	95	158	234
	복지옹구지원서비스 ³⁾	-	-	-	-	86	208	36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90	342	387	412	385	360	363	
노인보호전문기관	29	32	33	34	35	37	3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⁴⁾	136	153	160	184	196	206	206	
학대피해노인쉼터 ⁵⁾	-	-	18	19	19	20	2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통계표 (67쪽) 참조

주: 1)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2)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6.7.1.)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12.12.)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3.12.15.)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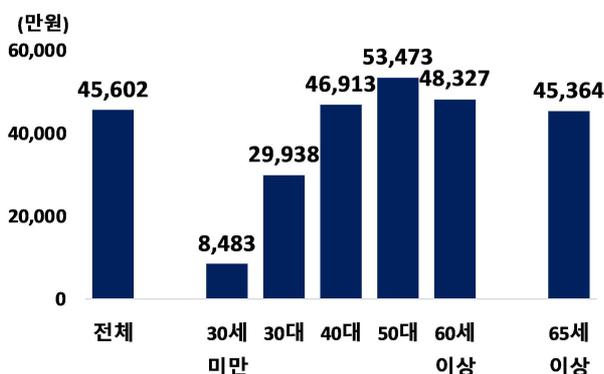
Ⅲ. 소득보장

13. 자산 소유액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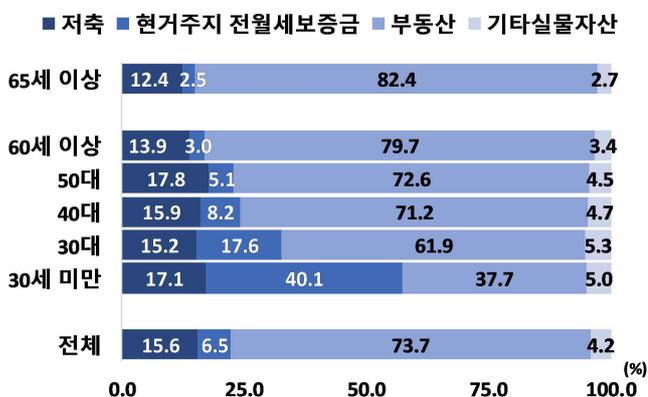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년 대비 4천 316만 원 증가한 4억 5,364만 원임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3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천 316만 원 증가함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체 가구(4억 5,602만 원)와 비슷한 수준임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우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2.4%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낮았음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2022) >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구성비(2022)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자산 소유액 및 구성¹⁾ >

(단위: 만 원)

연도	순자산 ²⁾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부채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저축액	현금주지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2021	41,048	45,615	7,454	6,299	1,155	38,161	36,881	1,280	4,567	2,628	1,939
2022	45,364	50,289	7,488	6,243	1,245	42,801	41,453	1,348	4,925	2,685	2,240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표 (68쪽) 참조

주: 1)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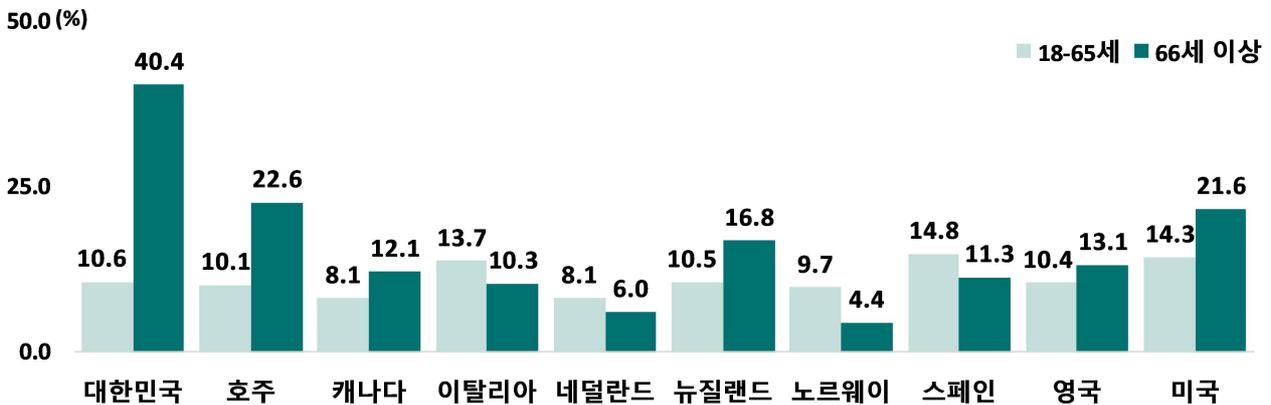
2) 순자산 = 자산 - 부채

14. 은퇴연령층 빈곤율

2021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보다 1.1%p 감소함

- '21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보다 1.1%p 감소하였고, 지니계수는 0.379, 소득 5분위 배율은 6.92배로 전년보다 증가함
- '20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20) >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3.9.1. 기준)

주: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기준 자료임

< 은퇴연령층 주요 소득분배지표¹⁾ >

(단위: %, 배)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²⁾		지니계수 ³⁾		소득 5분위 배율 ⁴⁾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2014	13.7	46.0	0.348	0.450	6.49	10.73
2015	12.9	44.3	0.337	0.427	6.09	9.27
2016	12.9	45.0	0.338	0.425	6.12	9.05
2017	12.6	44.0	0.337	0.419	6.09	8.82
2018	11.8	43.4	0.325	0.406	5.67	7.94
2019	11.1	43.2	0.317	0.389	5.40	7.21
2020	10.6	40.4	0.312	0.376	5.19	6.62
2021	10.6	39.3	0.315	0.379	5.30	6.92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표 (69쪽) 참조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2)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3)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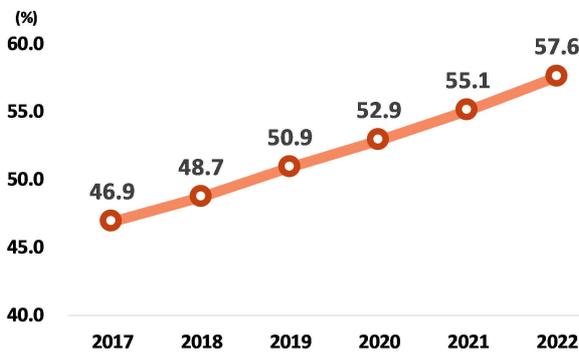
4)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15. 공적연금 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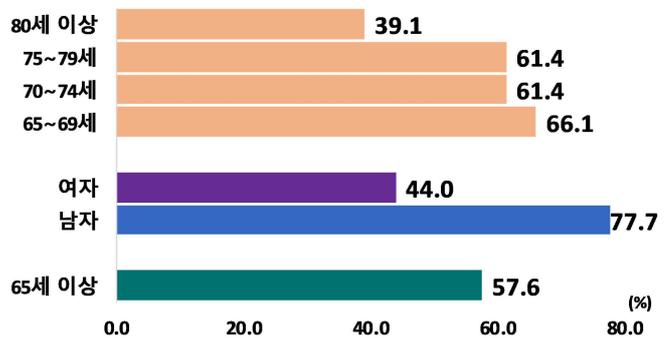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57.6%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2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7.6%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 여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44.0%로 남자(77.7%)의 절반 수준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의 연금 수급률이 66.1%로 가장 높았고, 70~74세(61.4%), 75~79세(61.4%)는 같고, 80세 이상 39.1% 순임

< 공적연금 수급률 >



< 성 및 연령별 공적연금 수급률(2022)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

(단위: %, 천 명)

연도	공적연금 수급률 ¹⁾	공적연금 수급자 수 ²⁾	국민연금	구성비	공무원연금	구성비	사학연금	구성비	군인연금	구성비
2017	46.9	3,313.6	2,936.7	88.6	279.5	8.4	42.5	1.3	54.9	1.7
2018	48.7	3,584.9	3,180.0	88.7	300.0	8.4	47.1	1.3	57.7	1.6
2019	50.9	3,914.5	3,478.6	88.9	323.4	8.3	52.3	1.3	60.1	1.5
2020	52.9	4,315.0	3,842.2	89.0	351.9	8.2	58.7	1.4	62.2	1.4
2021	55.1	4,723.4	4,215.0	89.2	379.0	8.0	65.0	1.4	64.3	1.4
2022	57.6	5,193.2	4,648.3	89.5	407.2	7.8	72.2	1.4	65.5	1.3
남자	77.7	3,061.1	2,604.5	85.1	286.3	9.4	125.7	4.1	44.6	1.5
여자	44.0	2,236.7	2,043.8	91.4	120.9	5.4	51.2	2.3	20.9	0.9
65~69세	66.1	2,024.9	1,832.7	90.5	141.4	7.0	35.2	1.7	15.6	0.8
70~74세	61.4	1,331.4	1,203.8	90.4	101.1	7.6	14.9	1.1	11.6	0.9
75~79세	61.4	983.4	888.5	90.4	72.1	7.3	11.0	1.1	11.8	1.2
80세 이상	39.1	855.3	723.3	84.6	92.7	10.8	13.2	1.5	26.1	3.1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표 (70쪽) 참조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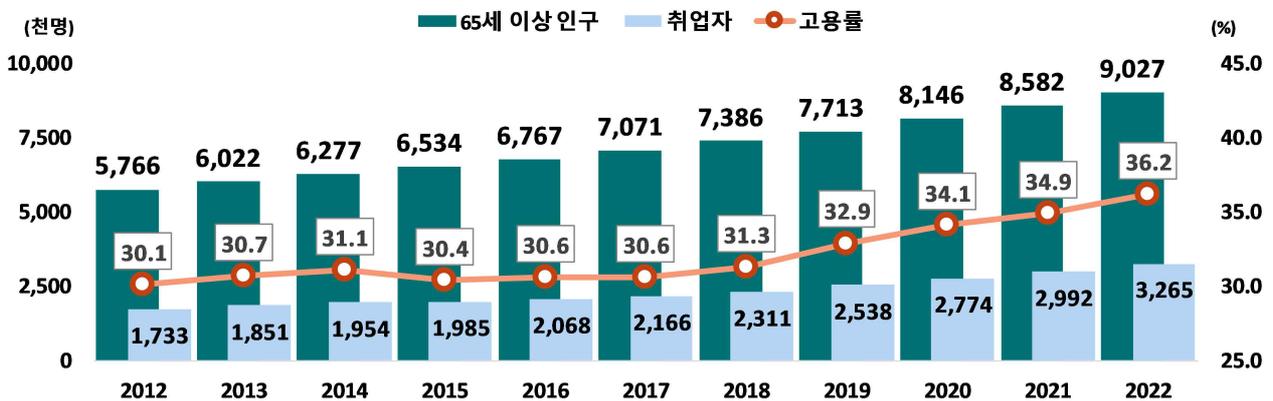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임

16. 고용률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6.2%, 실업률은 3.0%임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6.2%로 전년(34.9%) 대비 1.3%p 상승함
- 고령자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2.1%)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음
- 고령자의 실업률은 '16년 이후 상승 추세였으나, '22년은 3.0%로 전년 대비 0.8%p 하락함

<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 현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현황 >

(단위: 천 명, %)

연도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¹⁾	실업률 ²⁾
		취업자	실업자		
2012	5,766	1,770	37	30.1	2.1
2013	6,022	1,879	28	30.7	1.5
2014	6,277	1,995	41	31.1	2.1
2015	6,534	2,034	48	30.4	2.4
2016	6,767	2,116	49	30.6	2.3
2017	7,071	2,228	62	30.6	2.8
2018	7,386	2,381	70	31.3	2.9
2019	7,713	2,622	85	32.9	3.2
2020	8,146	2,879	105	34.1	3.6
2021	8,582	3,112	119	34.9	3.8
2022	9,027	3,365	100	36.2	3.0
전체 ³⁾ (2022년)	45,260	28,922	833	62.1	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1쪽) 참조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3) 15세 이상 인구임

- (산업별 취업자) '22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43.7%), 농림어업(24.7%), 도소매·음식숙박업(12.9%) 순임
- 전체 취업자보다 고령층의 종사 비중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임

< 고령자(65세 이상)의 산업별¹⁾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 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 수·통신· 금융업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6.9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6
2021	2,992	100.0	25.0	5.7	5.7	69.3	4.3	13.1	44.0	7.8
2022	3,265	100.0	24.7	5.9	5.9	69.4	4.9	12.9	43.7	7.9
전체 ²⁾ (2022년)	28,089	100.0	5.4	16.1	16.0	78.5	7.6	19.6	39.0	1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2쪽) 참조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임

- (직업별 취업자) '22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35.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2%), 서비스·판매 종사자(16.7%),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15.2%) 순임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사무종사자 및 관리자·전문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2021	2,992	100.0	4.8	3.4	16.8	24.2	14.1	36.6
2022	3,265	100.0	5.1	3.3	16.7	24.2	15.2	35.6
전체 ²⁾ (2022년)	28,089	100.0	22.5	17.3	21.2	5.2	19.4	1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3쪽) 참조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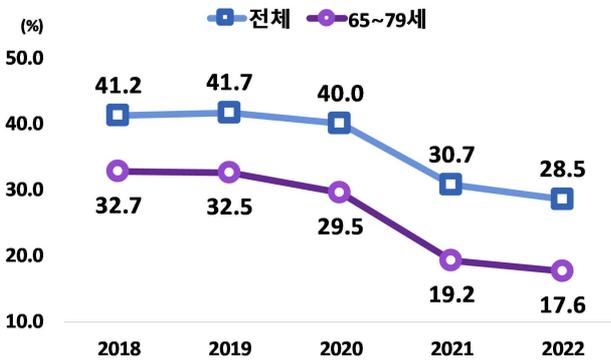
IV. 사회참여 · 관계

17. 평생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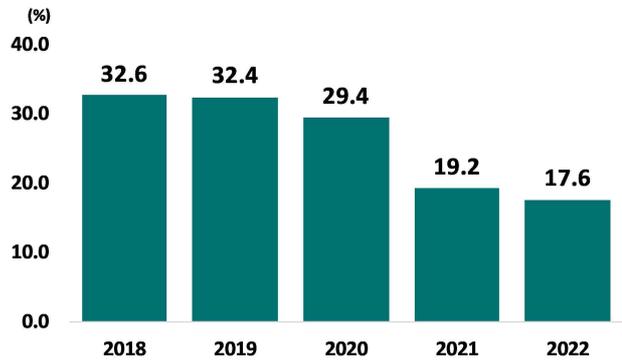
2022년 65~79세 고령자 중 17.6%가 평생교육에 참여하였고, 전년 대비 1.6%p 감소함

- '22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65~79세 고령자는 17.6%로 전년 대비 1.6%p 감소함
- 고령자의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비형식교육 참여 비중은 17.6%로 전년 대비 1.6%p 감소함
- 직업과 관련된 목적의 비형식 교육을 받은 고령자는 5.4%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함

< 평생교육 참여율 >



< 고령층(65~79세)의 비형식교육 참여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조사」

< 평생교육 참여율¹⁾ >

(단위: %)

	전체				65~79세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2018	41.2	2.3	40.4	18.8	32.7	0.1	32.6	5.5
2019	41.7	1.5	40.9	18.7	32.5	0.1	32.4	4.9
2020	40.0	1.4	39.3	20.1	29.5	0.1	29.4	6.0
2021	30.7	0.8	30.2	17.1	19.2	0.2	19.2	4.9
2022	28.5	0.6	28.0	13.6	17.6	X ⁶⁾	17.6	5.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조사」

☞ 통계표 (7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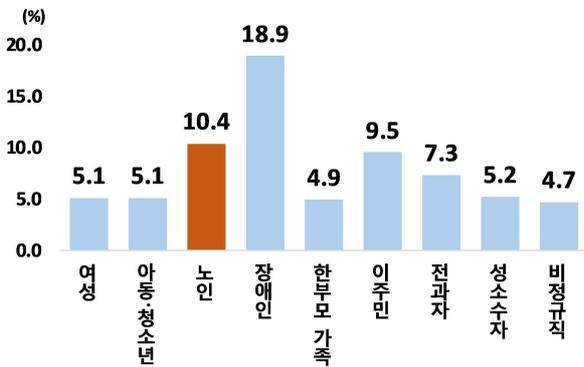
-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6) 사례수가 작아 공표하지 않음

18. 노인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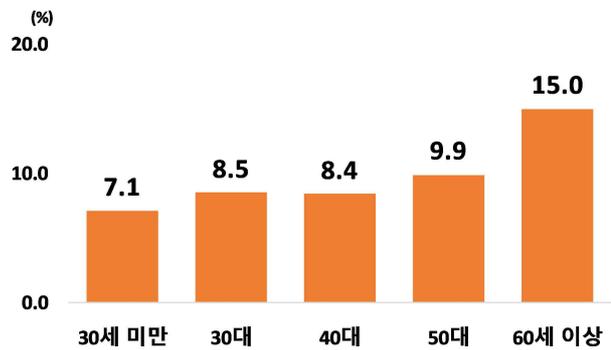
2022년 성인의 10.4%는 노인이 인권침해·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함

- '22년 19세 이상 성인 중 10.4%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장애인(18.9%)」 다음으로 높았음
-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남자, 여자의 비중은 각각 10.1%, 10.8%로 비슷하였음
-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60세 이상에서 15.0%로 가장 높았음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2) >



< 연령대별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2, 노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2)¹⁾²⁾ >

(단위: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전체		5.1	5.1	10.4	18.9	4.9	9.5	7.3	5.2	4.7
성별	남자	3.5	4.8	10.1	18.8	4.8	9.6	7.1	5.3	5.5
	여자	6.6	5.3	10.8	19.0	5.0	9.4	7.6	5.1	4.0
연령 대별	30세 미만	5.0	6.0	7.1	19.9	5.2	9.3	6.5	6.7	6.1
	30대	7.3	5.4	8.5	21.8	5.2	8.4	4.7	6.4	4.9
	40대	5.8	5.5	8.4	19.1	5.5	9.6	6.9	6.1	4.9
	50대	4.7	4.8	9.9	19.0	4.9	10.1	8.5	5.0	4.8
	60세 이상	3.9	4.3	15.0	16.6	4.3	9.8	8.7	3.2	3.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 통계표 (74쪽) 참조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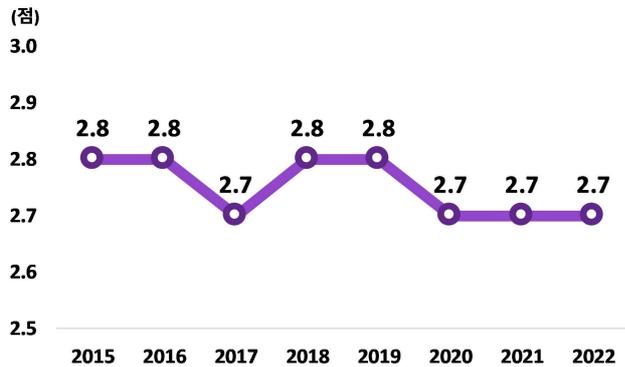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19. 세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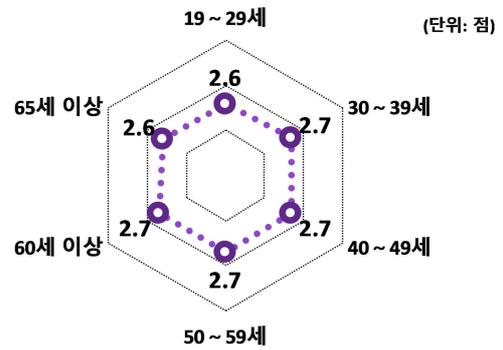
2022년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7점으로 전년과 동일

- '22년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7점으로 전년과 동일함
-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 갈등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인식함

< 세대갈등 인식 >



< 연령별 세대갈등 인식(2022)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세대갈등¹⁾ 인식²⁾ >

(단위: 점, %)

연도	평균 ³⁾	전혀 심하지 않다(1점)	별로 심하지 않다(2점)	약간 심하다(3점)	매우 심하다(4점)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2021	2.7	3.2	36.3	48.7	11.8
2022	2.7	2.7	37.7	49.3	10.3
19~29세	2.6	3.2	41.3	44.5	11.1
30~39세	2.7	2.5	36.0	49.8	11.7
40~49세	2.7	2.9	35.1	51.7	10.3
50~59세	2.7	2.1	38.2	49.0	10.7
60세 이상	2.7	2.7	38.0	50.2	9.1
65세 이상	2.6	2.8	39.0	48.7	9.5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통계표 (75쪽) 참조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중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

V. 생활환경

20. 보행 안전성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6.2명, 부상률은 111.1명임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6.2명으로 전년 대비 0.8명 감소하였고, 부상률은 111.1명으로 1.2명 증가함
-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의 3.4배, 부상률은 1.5배 수준으로 나타났음

<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보행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사망자 수	사망률 ¹⁾	부상자 수	부상률 ²⁾
전체	2017	1,675	3.3	47,707	92.9
	2018	1,487	2.9	46,400	89.9
	2019	1,302	2.5	47,200	91.2
	2020	1,093	2.1	36,939	71.3
	2021	1,018	2.0	36,001	69.6
	2022	933	1.8	38,088	73.8
65세 이상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1.0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3
	2021	601	7.0	9,423	109.9
	2022	558	6.2	10,016	111.1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표 (76쪽) 참조

주: 1)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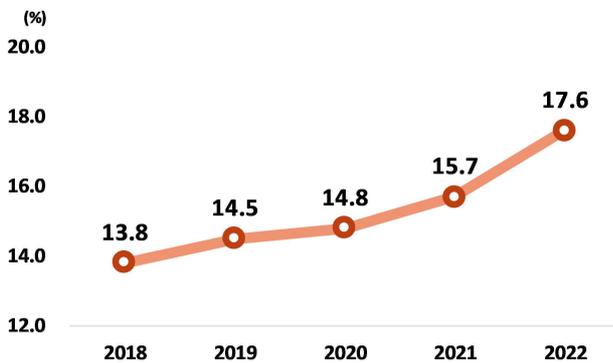
2)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000

21. 운전자 사고 비중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17.6%이며, 전년보다 1.9%p 증가

- '22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17.6%로 전년 대비 1.9%p 증가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고건수와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65~69세의 사고 비중이 8.6%로 가장 높았음
- '22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6.9%이며, 부상자 비중은 17.5%로 전년 대비 각각 2.6%p, 2.2%p 증가함
 - 고령 운전자 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2.1%로 전년보다 0.1%p 감소하였으나, 전체연령 치사율보다 0.7%p 높음

<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 >



<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상자 비중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¹⁾ >

(단위: 건, 명, %)

	전체				65세 이상							
	사고 건수	사망자	치사율 ²⁾	부상자	사고 건수	비중 ³⁾	사망자	비중 ⁴⁾	치사율 ²⁾	부상자	비중 ⁵⁾	
2018	217,148	3,781	1.7	323,037	30,012	13.8	843	22.3	2.8	43,469	13.5	
2019	229,600	3,349	1.5	341,712	33,239	14.5	769	23.0	2.3	48,223	14.1	
2020	209,654	3,081	1.5	306,194	31,072	14.8	720	23.4	2.3	44,269	14.5	
2021	203,130	2,916	1.4	291,608	31,841	15.7	709	24.3	2.2	44,713	15.3	
2022	196,836	2,735	1.4	281,803	34,652	17.6	735	26.9	2.1	49,281	17.5	
65~69세	-	-	-	-	16,952	8.6	295	10.8	1.7	24,256	8.6	
70~74세	-	-	-	-	9,738	4.9	167	6.1	1.7	14,143	5.0	
75~79세	-	-	-	-	5,095	2.6	122	4.5	2.4	7,049	2.5	
80~84세	-	-	-	-	2,252	1.1	106	3.9	4.7	3,047	1.1	
85세 이상	-	-	-	-	615	0.3	45	1.6	7.3	786	0.3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통계표(7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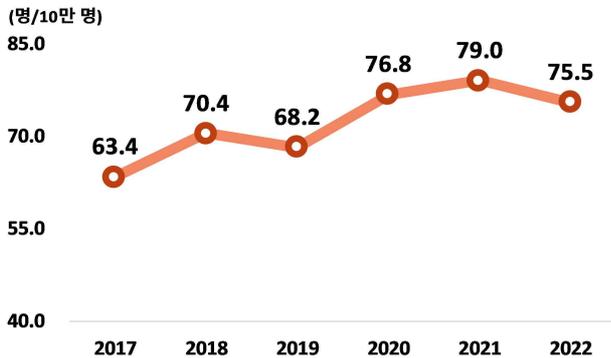
-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 2) 치사율 = (해당 연령 운전자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해당 연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 × 100
- 3) 사고 건수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건수 ÷ 전체 운전자 사고 건수) × 100
- 4) 사망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100
- 5) 부상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100

22.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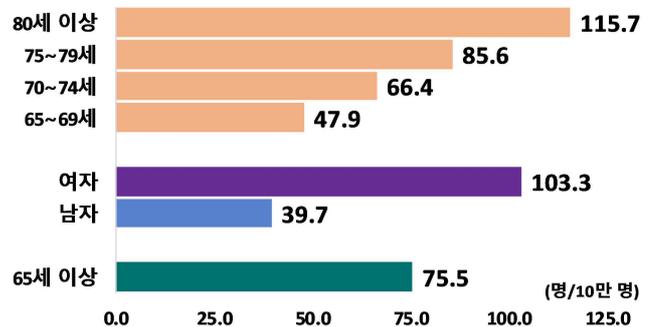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75.5명은 학대 피해를 경험함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 명당 75.5명으로 전년 대비 3.5명 감소함
- 여자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103.3명으로 남자(39.7명)보다 높았음
- 학대 피해 경험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며, 80세 이상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115.7명임

<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2021)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

< 고령자(65세 이상) 학대 피해¹⁾²⁾ 경험률 >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연도	학대 피해 경험률 ³⁾	성별 ⁴⁾		연령별 ⁵⁾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9	34.8	66.4	79.2	117.8
2019	68.2	38.5	90.6	37.5	63.0	72.8	112.1
2020	76.8	44.0	101.7	46.6	69.6	83.2	121.4
2021	79.0	43.8	106.1	49.3	72.0	88.9	121.3
2022	75.5	39.7	103.3	47.9	66.4	85.6	115.7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표 (77쪽) 참조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4) 성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성별 추계인구) × 100,000

5) 연령대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연령대별 추계 인구) × 100,000

23. 주거 만족도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3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2.92점임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3점으로 전년보다 0.01점 상승하였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2점으로 전년 대비 0.01점 하락함
- 전체 가구에 비해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 0.07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0.04점 낮았음
- 소음문제, 대기오염, 지역유대 항목에서는 고령자 가구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이외 11개 항목에서는 일반가구 만족도가 더 높았음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

(단위: 점)

	전체 가구				고령자 가구 ³⁾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주택 만족도 ¹⁾	2.98	3.00	3.00	3.00	2.89	2.92	2.92	2.93
주거환경 만족도 ²⁾	2.94	2.94	2.97	2.96	2.89	2.87	2.93	2.92
편의시설	2.94	2.91	2.93	2.96	2.78	2.75	2.78	2.82
의료·복지시설	2.91	2.89	2.91	2.93	2.74	2.72	2.75	2.79
공공시설	2.92	2.94	2.95	2.96	2.78	2.79	2.82	2.83
문화시설	2.74	2.71	2.65	2.65	2.59	2.55	2.51	2.53
공원·녹지	2.92	2.98	3.01	3.00	2.81	2.89	2.94	2.93
대중교통	2.93	2.97	2.99	2.99	2.81	2.85	2.89	2.89
주차시설	2.77	2.84	2.85	2.82	2.76	2.82	2.83	2.79
보행안전	2.99	3.03	3.05	3.03	2.95	2.98	3.02	3.01
교육환경	2.93	2.95	2.95	2.95	2.82	2.83	2.85	2.87
치안문제	3.00	3.05	3.07	3.07	2.95	2.99	3.02	3.03
소음문제	2.87	2.91	2.91	2.93	2.86	2.92	2.94	2.94
주변청결	3.01	3.07	3.08	3.09	2.98	3.04	3.05	3.07
대기오염	2.96	3.00	3.05	3.05	2.98	3.03	3.08	3.08
지역유대	3.06	3.07	3.06	3.05	3.09	3.13	3.14	3.11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통계표 (78쪽) 참조

주: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3)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VI. 주관적 웰빙

24. 삶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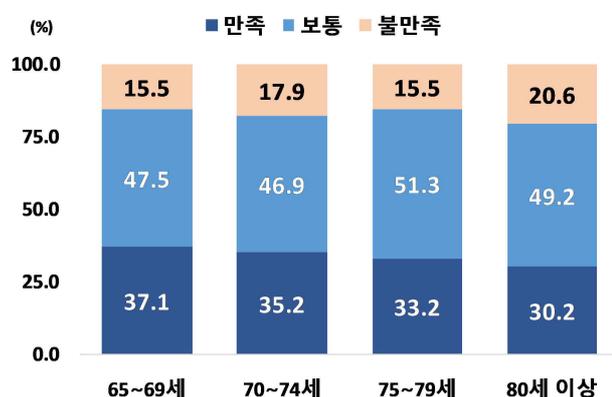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34.3%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음

- '22년 65세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4.3%로 전년 대비 9.3%p 증가함
- 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보다 낮은 수준이며, '22년에도 낮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삶에 대한 만족도¹⁾ >



< 연령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 삶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단위: %)

연도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7	19.3	3.2	16.1	52.0	28.7	22.3	6.4
2018	29.9	6.1	23.8	47.7	22.4	18.5	3.9
2019	25.0	6.2	18.8	50.3	24.7	19.5	5.3
2020	33.5	8.6	25.0	50.9	15.6	12.7	2.9
2021	25.0	6.5	18.6	49.7	25.3	20.4	4.9
2022	34.3	7.7	26.5	48.5	17.2	14.1	3.1
65~69세	37.1	8.6	28.5	47.5	15.5	12.8	2.7
70~74세	35.2	8.3	26.9	46.9	17.9	15.1	2.8
75~79세	33.2	7.2	26.0	51.3	15.5	11.4	4.0
80세 이상	30.2	6.4	23.8	49.2	20.6	17.4	3.2
전체(2022년) ¹⁾	43.3	12.1	31.2	42.6	14.1	11.6	2.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표(7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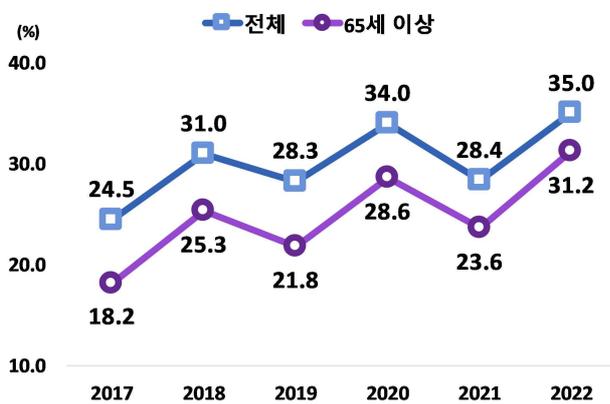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5. 성취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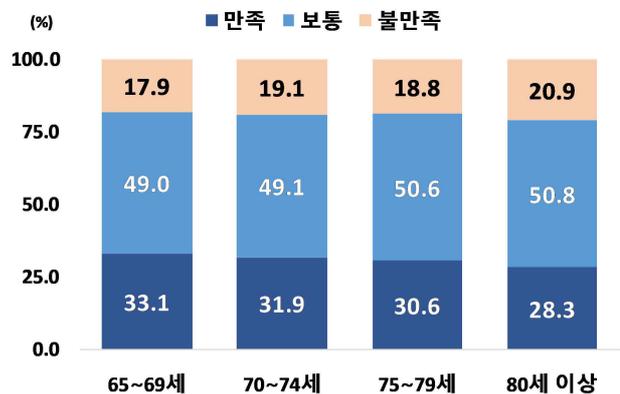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31.2%)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1.2%로 전년보다 7.6%p 증가함
- 고령자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보다 낮은 수준이며, '22년에도 낮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성취에 대한 만족도¹⁾ >



< 연령대별 성취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 성취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단위: %)

연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7	18.2	2.8	15.3	52.7	29.2	23.3	5.8
2018	25.3	4.6	20.8	49.6	25.0	20.7	4.3
2019	21.8	4.1	17.7	51.3	26.9	20.8	6.1
2020	28.6	5.7	23.0	48.1	23.3	18.7	4.6
2021	23.6	5.3	18.3	51.4	25.0	19.6	5.5
2022	31.2	5.4	25.8	49.8	19.0	15.5	3.5
65~69세	33.1	6.4	26.7	49.0	17.9	15.1	2.8
70~74세	31.9	5.0	26.9	49.1	19.1	15.7	3.4
75~79세	30.6	4.8	25.9	50.6	18.8	14.8	3.9
80세 이상	28.3	4.8	23.5	50.8	20.9	16.6	4.3
전체(2022년) ¹⁾	35.0	7.5	27.5	46.1	18.9	15.1	3.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통계표(80쪽) 참조

통계표

I.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1-1. 인구 추이	51
1-2. 성, 연령별 고령인구	52
2. 지역별 고령인구	54
3. 고령자 가구	56
4. 이혼 및 재혼	57
5. 주택 소유율	58

II. 건강

6. 기대여명	59
7. 사망원인별 사망률	60
8. 본인부담 의료비	62
9. 건강검진 수검률	64
10. 운동 실천율	65
1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66
12. 노인 복지시설	67

III. 소득보장

13. 자산 소유액 및 구성	68
14. 은퇴연령층 빈곤율	69
15. 공적연금 수급률	70
16. 고용률	
16-1. 고용률	71
16-2. 산업별 취업자 분포	72
16-3. 직업별 취업자 분포	73

IV. 사회참여·관계

17. 평생교육 참여율	74
18. 노인차별	74
19. 세대갈등	75

V. 생활환경

20. 보행 안전성	76
21. 운전자 사고 비중	77
22.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77
23. 주거 만족도	78

VI. 주관적 웰빙

24. 삶에 대한 만족도	79
25. 성취에 대한 만족도	80

□ 국제비교

1. OECD 주요 국가별 연령구조	81
2. OECD 주요 국가의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도달연도 및 소요연수	82
3.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83
4.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	84

1-1. 인구 추이

(단위: 명,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명)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0	47,008,111	3,394,896	7.2	10.1	34.3
2005	48,184,561	4,320,787	9.0	12.5	46.8
2010	49,554,112	5,366,109	10.8	14.8	67.2
2015	51,014,947	6,541,168	12.8	17.5	93.0
2020	51,836,239	8,151,867	15.7	21.8	129.3
2021	51,744,876	8,571,347	16.6	23.1	139.5
2022	51,628,117	9,018,412	17.5	24.6	152.0
2023	51,558,034	9,499,933	18.4	26.1	167.1
2024	51,500,029	10,008,326	19.4	27.8	183.2
2025	51,447,504	10,585,254	20.6	29.7	201.5
2026	51,397,309	11,197,381	21.8	31.8	223.0
2027	51,348,388	11,670,499	22.7	33.5	242.6
2028	51,300,095	12,199,730	23.8	35.4	263.9
2029	51,250,905	12,596,450	24.6	36.9	281.5
2030	51,199,019	13,056,326	25.5	38.6	301.6
2031	51,142,848	13,494,495	26.4	40.4	320.9
2032	51,082,971	13,910,059	27.2	42.1	336.6
2033	51,018,619	14,338,057	28.1	44.0	349.4
2034	50,947,857	14,842,666	29.1	46.4	361.4
2035	50,868,691	15,289,115	30.1	48.6	369.1
2036	50,774,771	15,757,376	31.0	51.1	375.8
2037	50,660,209	16,177,309	31.9	53.5	380.8
2038	50,524,704	16,580,343	32.8	55.9	384.8
2039	50,368,731	16,953,017	33.7	58.4	387.8
2040	50,193,281	17,244,870	34.4	60.5	389.5
2045	49,029,906	18,335,419	37.4	69.9	411.6
2050	47,358,532	19,003,889	40.1	78.6	456.2
2055	45,151,722	18,765,328	41.6	82.8	502.7
2060	42,617,053	18,682,658	43.8	90.4	570.6
2065	40,069,340	18,402,459	45.9	98.2	630.0
2070	37,655,867	17,472,938	46.4	100.6	620.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1-2. 성, 연령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명)

	65세 이상	성별				성비 ²⁾
		남자	고령인구 비중 ¹⁾	여자	고령인구 비중 ¹⁾	
2000	3,395	1,300	5.5	2,095	9.0	62.0
2005	4,321	1,721	7.1	2,600	10.9	66.2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2015	6,541	2,749	10.7	3,793	14.9	72.5
2020	8,152	3,521	13.6	4,631	17.9	76.0
2021	8,571	3,723	14.4	4,849	18.7	76.8
2022	9,018	3,939	15.3	5,080	19.7	77.5
2023	9,500	4,174	16.2	5,326	20.6	78.4
2024	10,008	4,419	17.2	5,589	21.7	79.1
2025	10,585	4,694	18.3	5,891	22.9	79.7
2026	11,197	4,988	19.4	6,209	24.1	80.3
2027	11,670	5,219	20.4	6,451	25.1	80.9
2028	12,200	5,483	21.4	6,716	26.1	81.6
2029	12,596	5,678	22.2	6,919	26.9	82.1
2030	13,056	5,901	23.1	7,156	27.9	82.5
2031	13,494	6,116	24.0	7,378	28.8	82.9
2032	13,910	6,318	24.8	7,592	29.6	83.2
2033	14,338	6,521	25.6	7,817	30.5	83.4
2034	14,843	6,763	26.6	8,080	31.6	83.7
2035	15,289	6,979	27.5	8,310	32.6	84.0
2036	15,757	7,208	28.5	8,550	33.5	84.3
2037	16,177	7,414	29.4	8,763	34.4	84.6
2038	16,580	7,609	30.3	8,972	35.4	84.8
2039	16,953	7,788	31.1	9,165	36.2	85.0
2040	17,245	7,928	31.8	9,317	36.9	85.1
2045	18,335	8,452	34.7	9,884	40.0	85.5
2050	19,004	8,795	37.4	10,209	42.8	86.2
2055	18,765	8,737	39.0	10,029	44.1	87.1
2060	18,683	8,816	41.6	9,867	46.0	89.3
2065	18,402	8,780	44.0	9,622	47.8	91.2
2070	17,473	8,403	44.7	9,070	48.1	92.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 당 명)

	연령별					
	65~69세	구성비 ³⁾	70~74세	구성비 ³⁾	75세 이상	구성비 ³⁾
2000	1,381	2.9	922	2.0	1,091	2.3
2005	1,690	3.5	1,215	2.5	1,416	2.9
2010	1,878	3.8	1,540	3.1	1,948	3.9
2015	2,106	4.1	1,780	3.5	2,656	5.2
2020	2,662	5.1	1,990	3.8	3,499	6.8
2021	2,896	5.6	2,091	4.0	3,585	6.9
2022	3,063	5.9	2,168	4.2	3,787	7.3
2023	3,274	6.3	2,240	4.3	3,986	7.7
2024	3,507	6.8	2,329	4.5	4,172	8.1
2025	3,685	7.2	2,533	4.9	4,367	8.5
2026	3,933	7.7	2,759	5.4	4,505	8.8
2027	4,017	7.8	2,924	5.7	4,729	9.2
2028	4,127	8.0	3,129	6.1	4,944	9.6
2029	4,079	8.0	3,356	6.5	5,161	10.1
2030	4,027	7.9	3,532	6.9	5,497	10.7
2031	3,920	7.7	3,775	7.4	5,800	11.3
2032	3,925	7.7	3,859	7.6	6,126	12.0
2033	3,889	7.6	3,968	7.8	6,481	12.7
2034	4,058	8.0	3,925	7.7	6,859	13.5
2035	4,109	8.1	3,879	7.6	7,301	14.4
2036	4,203	8.3	3,780	7.4	7,774	15.3
2037	4,272	8.4	3,789	7.5	8,116	16.0
2038	4,314	8.5	3,759	7.4	8,507	16.8
2039	4,254	8.4	3,927	7.8	8,772	17.4
2040	4,172	8.3	3,980	7.9	9,093	18.1
2045	3,707	7.6	4,057	8.3	10,571	21.6
2050	3,709	7.8	3,619	7.6	11,676	24.7
2055	3,158	7.0	3,630	8.0	11,977	26.5
2060	3,500	8.2	3,099	7.3	12,084	28.4
2065	3,335	8.3	3,444	8.6	11,624	29.0
2070	2,614	6.9	3,288	8.7	11,571	30.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2. 지역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10	고령인구 비중	2015	고령인구 비중	2020	고령인구 비중	2022	고령인구 비중	2025	고령인구 비중
전국	5,366	10.8	6,541	12.8	8,152	15.7	9,500	18.4	10,585	20.6
서울	928	9.2	1,209	12.2	1,477	15.4	1,692	18.1	1,853	20.1
부산	391	11.3	495	14.3	628	18.7	725	22.2	794	24.7
대구	247	10.0	308	12.5	388	16.1	445	19.0	492	21.4
인천	230	8.5	303	10.5	398	13.5	482	16.3	551	18.6
광주	130	8.7	164	10.9	204	13.8	234	16.1	261	18.1
대전	128	8.5	162	10.5	206	13.8	241	16.5	269	18.7
울산	74	6.7	99	8.5	138	12.1	170	15.4	195	18.0
세종	-	-	20	10.8	32	9.2	41	10.4	49	11.5
경기	990	8.5	1,281	10.3	1,720	12.8	2,093	15.2	2,401	17.1
강원	223	15.0	253	16.7	304	20.0	355	23.3	396	25.9
충북	204	13.4	229	14.4	277	17.0	324	19.8	361	22.0
충남	309	14.9	330	15.7	390	17.9	445	20.4	492	22.4
전북	284	15.8	321	17.5	372	20.6	413	23.4	448	25.7
전남	349	19.7	370	20.6	410	22.9	447	25.5	482	27.7
경북	424	16.1	466	17.4	551	20.8	625	23.9	685	26.4
경남	386	12.0	450	13.5	556	16.6	651	19.9	726	22.3
제주	68	12.4	82	13.7	101	15.1	117	17.2	130	18.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30	고령인구 비중	2035	고령인구 비중	2040	고령인구 비중	2045	고령인구 비중	2050	고령인구 비중
전국	13,056	25.5	15,289	30.1	17,245	34.4	18,335	37.4	19,004	40.1
서울	2,188	24.5	2,475	28.3	2,728	31.9	2,853	34.5	2,930	37.0
부산	925	30.1	1,019	34.5	1,085	38.4	1,101	41.2	1,096	43.6
대구	594	27.0	679	32.2	741	36.7	761	39.7	760	42.1
인천	714	24.1	855	28.8	980	33.2	1,055	36.4	1,105	39.3
광주	319	22.8	375	27.5	424	32.0	449	35.3	462	38.1
대전	330	23.6	385	28.1	433	32.3	458	35.3	471	37.8
울산	255	24.4	305	30.5	339	35.6	352	39.0	354	41.9
세종	72	14.6	99	18.0	129	22.0	156	25.4	182	28.8
경기	3,152	21.9	3,860	26.3	4,511	30.5	4,923	33.6	5,220	36.4
강원	484	31.6	564	36.7	636	41.4	675	44.5	700	47.2
충북	450	27.2	535	32.1	610	36.6	655	39.8	685	42.7
충남	606	27.2	714	31.7	820	36.4	891	39.8	943	43.0
전북	523	31.0	594	36.0	656	40.9	686	44.1	698	46.8
전남	559	32.9	635	38.2	702	43.2	737	46.6	754	49.5
경북	822	32.2	942	37.6	1,040	42.6	1,085	46.0	1,102	48.9
경남	899	28.2	1,055	33.8	1,183	39.1	1,247	42.9	1,275	46.0
제주	163	23.1	196	27.5	229	31.9	251	35.2	268	38.3

3. 고령자 가구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고령자 가구 ¹⁾	비중	부부	구성비	부부+ 미혼 자녀	구성비	부(모)+ 미혼 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05	16,039	2,350	14.7	796	33.9	243	10.3	116	4.9	746	31.7	450	19.1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15	19,013	3,664	19.3	1,215	33.2	365	10.0	204	5.6	1,208	33.0	671	18.3
2020	20,731	4,640	22.4	1,610	34.7	443	9.6	259	5.6	1,618	34.9	710	15.3
2021	21,278	4,919	23.1	1,731	35.2	458	9.3	271	5.5	1,763	35.8	696	14.2
2022	21,579	5,195	24.1	1,829	35.2	480	9.2	287	5.5	1,875	36.1	723	13.9
2023	21,834	5,491	25.1	1,936	35.3	505	9.2	305	5.5	1,993	36.3	752	13.7
2024	22,080	5,801	26.3	2,050	35.3	533	9.2	324	5.6	2,114	36.4	780	13.4
2025	22,309	6,147	27.6	2,180	35.5	563	9.2	344	5.6	2,248	36.6	812	13.2
2026	22,516	6,517	28.9	2,322	35.6	597	9.2	367	5.6	2,387	36.6	844	12.9
2027	22,706	6,808	30.0	2,428	35.7	617	9.1	385	5.6	2,508	36.8	870	12.8
2028	22,880	7,128	31.2	2,547	35.7	640	9.0	404	5.7	2,639	37.0	898	12.6
2029	23,037	7,372	32.0	2,640	35.8	654	8.9	418	5.7	2,743	37.2	918	12.4
2030	23,180	7,654	33.0	2,746	35.9	669	8.7	435	5.7	2,861	37.4	943	12.3
2031	23,311	7,928	34.0	2,855	36.0	685	8.6	451	5.7	2,973	37.5	964	12.2
2032	23,430	8,190	35.0	2,950	36.0	699	8.5	466	5.7	3,088	37.7	987	12.1
2033	23,537	8,458	35.9	3,048	36.0	713	8.4	482	5.7	3,205	37.9	1,011	12.0
2034	23,629	8,772	37.1	3,163	36.1	736	8.4	501	5.7	3,334	38.0	1,038	11.8
2035	23,709	9,054	38.2	3,263	36.0	751	8.3	518	5.7	3,458	38.2	1,064	11.8
2036	23,775	9,348	39.3	3,370	36.1	769	8.2	536	5.7	3,582	38.3	1,090	11.7
2037	23,824	9,614	40.4	3,463	36.0	784	8.2	552	5.7	3,702	38.5	1,114	11.6
2038	23,856	9,868	41.4	3,549	36.0	797	8.1	567	5.7	3,818	38.7	1,137	11.5
2039	23,870	10,103	42.3	3,632	36.0	808	8.0	581	5.8	3,925	38.9	1,157	11.4
2040	23,866	10,290	43.1	3,688	35.8	811	7.9	592	5.8	4,023	39.1	1,176	11.4
2041	23,843	10,442	43.8	3,734	35.8	811	7.8	600	5.7	4,106	39.3	1,191	11.4
2042	23,803	10,576	44.4	3,774	35.7	811	7.7	608	5.7	4,181	39.5	1,203	11.4
2043	23,744	10,705	45.1	3,809	35.6	810	7.6	615	5.7	4,255	39.7	1,216	11.4
2044	23,667	10,829	45.8	3,845	35.5	811	7.5	622	5.7	4,323	39.9	1,227	11.3
2045	23,572	10,984	46.6	3,885	35.4	815	7.4	632	5.8	4,410	40.1	1,243	11.3
2046	23,459	11,131	47.4	3,921	35.2	820	7.4	641	5.8	4,492	40.4	1,257	11.3
2047	23,329	11,264	48.3	3,959	35.1	826	7.3	650	5.8	4,562	40.5	1,268	11.3
2048	23,183	11,352	49.0	3,976	35.0	826	7.3	656	5.8	4,618	40.7	1,275	11.2
2049	23,023	11,385	49.5	3,976	34.9	822	7.2	658	5.8	4,652	40.9	1,277	11.2
2050	22,849	11,375	49.8	3,958	34.8	812	7.1	658	5.8	4,671	41.1	1,276	11.2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이혼 및 재혼

(단위: 건)

65세 이상	이혼		재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1,321	423	971	202
2001	1,502	467	999	205
2002	1,768	537	1,042	242
2003	2,332	778	1,177	277
2004	2,340	816	1,394	332
2005	2,589	916	1,566	413
2006	3,061	1,120	1,746	502
2007	3,581	1,412	1,992	606
2008	4,409	1,738	1,855	548
2009	4,370	1,739	2,065	641
2010	4,346	1,734	2,099	702
2011	4,484	1,789	2,234	799
2012	4,836	1,955	2,449	912
2013	5,464	2,317	2,515	938
2014	5,914	2,721	2,467	902
2015	5,852	2,655	2,672	1,069
2016	6,101	2,910	2,568	1,109
2017	6,883	3,427	2,684	1,202
2018	8,032	4,148	2,759	1,347
2019	8,867	4,647	2,926	1,494
2020	9,854	5,285	2,966	1,621
2021	11,171	6,208	3,155	1,860
2022	10,220	5,937	3,290	2,01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5. 주택 소유율¹⁾²⁾

(단위: %)

	65세 이상	가구주 연령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6.5	71.1	67.8	54.4
2016	66.2	70.3	67.8	54.9
2017	67.2	70.5	69.1	57.2
2018	67.3	70.2	69.4	58.1
2019	67.7	70.0	70.0	59.3
2020	67.9	69.6	70.3	60.3
2021	67.9	69.2	70.4	60.7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인구총조사」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6. 기대여명¹⁾²⁾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6.4	14.3	18.2	9.8	8.5	10.7
2001	16.6	14.5	18.4	9.9	8.6	10.8
2002	16.8	14.7	18.5	10.0	8.7	10.8
2003	17.1	15.1	18.9	10.3	9.0	11.2
2004	17.4	15.3	19.2	10.4	9.1	11.4
2005	17.7	15.5	19.6	10.6	9.2	11.6
2006	17.9	15.8	19.8	10.8	9.4	11.8
2007	18.2	16.0	20.2	11.0	9.5	12.1
2008	18.6	16.3	20.7	11.3	9.7	12.5
2009	19.0	16.7	21.1	11.6	10.0	12.9
2010	19.1	16.8	21.2	11.6	10.0	12.9
2011	19.4	17.1	21.5	11.8	10.1	13.0
2012	19.5	17.2	21.5	11.8	10.1	13.1
2013	19.9	17.6	21.9	12.1	10.5	13.4
2014	20.2	17.9	22.3	12.4	10.7	13.7
2015	20.3	18.2	22.4	12.4	10.8	13.7
2016	20.6	18.4	22.6	12.6	11.0	13.9
2017	20.8	18.6	22.7	12.7	11.1	14.0
2018	20.8	18.7	22.8	12.7	11.1	14.1
2019	21.3	19.1	23.4	13.2	11.5	14.6
2020	21.5	19.2	23.6	13.3	11.6	14.7
2021	21.6	19.3	23.7	13.4	11.7	14.9

자료: 통계청, 「생명표」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2) 2016.12.2. 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으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7. 사망원인별 사망률¹⁾²⁾³⁾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01	악성신생물(암) 933.2	뇌혈관질환 776.9	심장질환 313.8	만성하기도질환 232.3	당뇨병 229.0
2002	악성신생물(암) 977.0	뇌혈관질환 790.8	심장질환 335.2	만성하기도질환 28876	당뇨병 231.8
2003	악성신생물(암) 961.7	뇌혈관질환 747.3	심장질환 311.8	당뇨병 224.8	만성하기도질환 217.1
2004	악성신생물(암) 937.0	뇌혈관질환 674.2	심장질환 312.8	당뇨병 210.2	만성하기도질환 187.3
2005	악성신생물(암) 924.5	뇌혈관질환 589.8	심장질환 331.6	당뇨병 200.3	만성하기도질환 161.6
2006	악성신생물(암) 905.6	뇌혈관질환 545.2	심장질환 338.9	당뇨병 194.0	만성하기도질환 143.3
2007	악성신생물(암) 902.0	뇌혈관질환 511.5	심장질환 349.1	당뇨병 181.8	만성하기도질환 146.7
2008	악성신생물(암) 885.5	뇌혈관질환 460.3	심장질환 333.5	당뇨병 158.0	만성하기도질환 136.1
2009	악성신생물(암) 865.4	뇌혈관질환 410.7	심장질환 332.6	당뇨병 146.6	만성하기도질환 124.4
2010	악성신생물(암) 882.4	뇌혈관질환 409.4	심장질환 344.0	당뇨병 153.1	폐렴 127.6
2011	악성신생물(암) 847.8	뇌혈관질환 381.1	심장질환 361.2	당뇨병 155.4	폐렴 143.2
2012	악성신생물(암) 852.9	뇌혈관질환 372.9	심장질환 367.1	폐렴 166.4	당뇨병 163.0
2013	악성신생물(암) 836.6	뇌혈관질환 353.0	심장질환 335.6	폐렴 166.6	당뇨병 148.5
2014	악성신생물(암) 827.4	심장질환 339.0	뇌혈관질환 323.6	폐렴 177.5	당뇨병 136.1
2015	악성신생물(암) 803.0	심장질환 351.0	뇌혈관질환 311.1	폐렴 209.1	당뇨병 133.2
2016	악성신생물(암) 796.2	심장질환 357.7	뇌혈관질환 286.9	폐렴 225.1	당뇨병 119.5
2017	악성신생물(암) 784.4	심장질환 361.3	뇌혈관질환 268.6	폐렴 257.6	당뇨병 108.2
2018	악성신생물(암) 763.0	심장질환 360.8	폐렴 295.3	뇌혈관질환 260.1	당뇨병 98.5
2019	악성신생물(암) 750.5	심장질환 335.7	폐렴 283.1	뇌혈관질환 232.0	당뇨병 87.1
2020	악성신생물(암) 733.3	심장질환 331.9	폐렴 257.5	뇌혈관질환 225.3	알츠하이머병 91.4
2021	악성신생물(암) 709.3	심장질환 312.0	폐렴 250.3	뇌혈관질환 220.6	알츠하이머병 92.0
2022	악성신생물(암) 783.9	심장질환 337.9	코로나19 331.3	폐렴 286.8	뇌혈관질환 254.2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1) 사망률 = {사망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2)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3) 만성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2001	고혈압성 질환 121.2	간 질환 84.4	폐렴 66.9	운수사고 62.0	호흡기 결핵 51.4
2002	고혈압성 질환 124.1	간 질환 80.0	폐렴 61.9	운수사고 61.4	고의적 자해(자살) 56.2
2003	고혈압성 질환 119.8	고의적 자해(자살) 72.7	간 질환 72.1	폐렴 63.0	운수사고 60.8
2004	고혈압성 질환 107.6	고의적 자해(자살) 79.3	폐렴 76.3	간 질환 63.1	운수사고 59.1
2005	고혈압성 질환 93.3	폐렴 87.3	고의적 자해(자살) 80.9	간 질환 58.4	운수사고 55.6
2006	폐렴 92.1	고혈압성 질환 91.9	고의적 자해(자살) 72.4	운수사고 54.0	간 질환 52.4
2007	고혈압성 질환 104.0	폐렴 87.7	고의적 자해(자살) 75.5	운수사고 52.2	간 질환 48.7
2008	폐렴 98.7	고혈압성 질환 86.1	고의적 자해(자살) 71.7	운수사고 48.2	간 질환 46.6
2009	폐렴 111.5	고혈압성 질환 83.7	고의적 자해(자살) 78.8	운수사고 47.6	간 질환 43.4
2010	만성하기도질환 122.8	고혈압성 질환 82.9	고의적 자해(자살) 81.9	운수사고 44.7	간 질환 43.8
2011	만성하기도질환 117.5	고혈압성 질환 85.0	고의적 자해(자살) 79.7	알츠하이머병 42.9	간 질환 42.2
2012	만성하기도질환 127.4	고혈압성 질환 85.8	고의적 자해(자살) 69.8	알츠하이머병 57.3	운수사고 41.5
2013	만성하기도질환 109.7	고혈압성 질환 74.4	알츠하이머병 70.8	고의적 자해(자살) 64.2	간 질환 39.9
2014	만성하기도질환 106.8	고혈압성 질환 76.3	알츠하이머병 69.1	고의적 자해(자살) 55.5	간 질환 38.1
2015	만성하기도질환 108.7	알츠하이머병 76.0	고혈압성 질환 73.7	고의적 자해(자살) 58.6	패혈증 40.4
2016	만성하기도질환 97.3	고혈압성 질환 75.9	알츠하이머병 70.3	고의적 자해(자살) 53.3	패혈증 46.9
2017	만성하기도질환 90.7	고혈압성 질환 77.7	알츠하이머병 70.2	패혈증 50.4	고의적 자해(자살) 47.7
2018	만성하기도질환 84.3	알츠하이머병 82.1	고혈압성 질환 78.1	패혈증 56.8	고의적 자해(자살) 48.6
2019	알츠하이머병 86.1	만성하기도질환 75.6	고혈압성 질환 69.7	패혈증 57.3	고의적 자해(자살) 46.6
2020	당뇨병 86.6	고혈압성 질환 71.2	패혈증 68.2	만성하기도질환 66.0	고의적 자해(자살) 41.7
2021	당뇨병 87.2	고혈압성 질환 68.4	패혈증 67.6	만성하기도질환 59.2	코로나19 50.7
2022	알츠하이머병 128.5	당뇨병 112.7	고혈압성 질환 83.2	패혈증 73.3	만성하기도질환 65.0

8. 본인부담 의료비

(단위: 억 원, 천 원, %)

	65세 이상				
	진료비 ¹⁾	1인당 진료비 ²⁾	본인부담금	1인당 본인부담금 ³⁾	본인부담금 비중 ⁴⁾
2005	60,731	1,549	15,155	387	25.0
2006	73,504	1,805	17,515	430	23.8
2007	91,190	2,079	21,653	494	23.7
2008	107,371	2,334	26,350	573	24.5
2009	124,236	2,574	30,286	627	24.4
2010	141,350	2,839	32,945	662	23.3
2011	153,893	2,968	35,805	691	23.3
2012	164,494	3,008	38,553	705	23.4
2013	180,852	3,151	42,578	742	23.5
2014	199,687	3,326	47,074	784	23.6
2015	222,361	3,573	53,426	859	24.0
2016	252,692	3,921	61,583	955	24.4
2017	283,247	4,162	69,074	1,015	24.4
2018	318,235	4,487	74,183	1,046	23.3
2019	357,925	4,796	83,351	1,117	23.3
2020	376,135	4,759	87,412	1,106	23.2
2021	413,829	4,974	97,156	1,168	23.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 ÷ 진료비} × 100

※ 2021년 연도 말 적용인구(65세 이상: 8,319,978명, 65~74세: 4,921,695명, 75세 이상: 3,398,283명)

(단위: 억 원, 천 원, %)

	65~74세					75세 이상				
	진료비 ¹⁾	1인당 진료비 ²⁾	본인 부담금	1인당 본인 부담금 ³⁾	본인 부담금 비중 ⁴⁾	진료비 ¹⁾	1인당 진료비 ²⁾	본인 부담금	1인당 본인 부담금 ³⁾	본인 부담금 비중 ⁴⁾
2005	41,414	1,544	10,415	388	25.1	19,316	1,561	4,741	383	24.5
2006	49,297	1,766	11,778	422	23.9	24,207	1,888	5,737	447	23.7
2007	59,792	1,988	14,215	473	23.8	31,398	2,276	7,438	539	23.7
2008	67,400	2,160	16,404	526	24.3	39,971	2,702	9,946	672	24.9
2009	75,542	2,352	18,236	568	24.1	48,694	3,017	12,050	747	24.7
2010	82,420	2,548	18,954	586	23.0	58,930	3,378	13,991	802	23.7
2011	86,400	2,619	19,867	602	23.0	67,493	3,579	15,938	845	23.6
2012	89,234	2,593	20,664	601	23.2	75,260	3,713	17,890	883	23.8
2013	94,384	2,650	21,776	611	23.1	86,468	3,969	20,803	955	24.1
2014	99,726	2,728	22,894	626	23.0	99,961	4,257	24,180	1,030	24.2
2015	108,554	2,901	25,616	685	23.6	113,807	4,587	27,809	1,121	24.4
2016	121,391	3,205	29,706	784	24.5	131,301	4,941	31,876	1,200	24.3
2017	132,102	3,372	32,815	838	24.8	151,145	5,233	36,260	1,255	24.0
2018	146,905	3,614	34,517	849	23.5	171,330	5,659	39,667	1,310	23.2
2019	166,774	3,881	39,185	912	23.5	191,151	6,039	44,166	1,395	23.1
2020	178,640	3,851	41,945	904	23.5	197,495	6,049	45,468	1,393	23.0
2021	200,288	4,070	47,618	968	23.8	213,541	6,284	49,538	1,458	23.2

9. 건강검진 수검률¹⁾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2010	58.0	63.4	53.9	73.3	74.2	72.4	60.5	64.0	57.8	30.7	39.0	26.8
2011	61.8	67.0	57.8	77.2	78.3	76.0	65.0	67.8	62.9	35.4	44.0	31.4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2020	62.5	66.2	59.5	74.0	73.4	74.6	66.4	68.4	64.7	36.9	45.1	32.4
2021	68.4	71.4	65.9	79.4	78.2	80.5	73.0	74.0	72.0	42.9	51.3	38.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일반검진 수검인원 ÷ 일반검진 대상인원) × 100

10. 운동 실천율

(단위: %)

65세 이상	걷기 실천율 ¹⁾³⁾			근력운동 실천율 ¹⁾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²⁾⁵⁾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46.8	50.3	44.4	11.6	19.0	6.5	-	-	-
2008	49.9	60.2	42.8	9.9	19.7	3.3	-	-	-
2009	47.1	54.6	41.9	10.7	19.0	5.1	-	-	-
2010	39.8	44.2	36.6	11.9	20.6	5.8	-	-	-
2011	35.9	45.4	29.2	13.2	24.4	5.3	-	-	-
2012	33.5	41.4	28.0	15.0	25.5	7.7	-	-	-
2013	35.3	42.2	30.4	18.7	30.7	10.2	-	-	-
2014	41.3	47.6	36.7	16.8	28.5	8.3	41.1	50.9	33.6
2015	35.8	41.1	32.0	17.7	30.7	8.3	33.7	41.7	27.9
2016	35.4	39.0	32.7	15.2	24.7	8.4	34.4	43.4	27.9
2017	35.7	42.2	30.8	17.5	28.8	9.0	29.4	32.6	26.9
2018	37.3	46.1	30.8	18.3	30.3	9.5	28.1	33.4	24.3
2019	39.9	44.3	36.5	18.3	30.5	8.7	33.0	36.6	30.1
2020	42.3	44.8	40.2	22.5	35.0	12.5	33.2	40.8	27.0
2021	44.4	46.7	42.5	21.0	30.0	13.8	28.7	30.4	27.3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2005년부터 조사, 2007년부터 조사주기 1년으로 변경

2) 2014년부터 조사

3)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4)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5)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1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¹⁾²⁾³⁾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3	5.7	3.5	7.3	1.3	1.4	1.3	4.4	3.3	5.2	16.7	10.4	19.4
2014	6.2	3.8	7.9	1.3	1.3	1.3	4.7	3.5	5.6	17.8	11.0	20.8
2015	6.6	4.0	8.5	1.3	1.3	1.3	5.0	3.7	5.9	18.7	11.5	21.8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2021	10.3	6.3	13.4	1.7	1.8	1.6	7.1	5.3	8.6	28.5	17.9	34.0
2022	10.5	6.4	13.7	1.7	1.9	1.6	6.9	5.3	8.3	29.2	18.2	34.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12. 노인 복지시설

(단위: 개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70,643	71,873	72,860	73,774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85,228	89,698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414	416	435	443	427	425	404	390	382	352	337	308
	양로시설	303	285	285	272	265	265	252	238	232	209	192	180
	노인공동생활가정	87	108	125	142	131	128	119	117	115	107	107	89
	노인복지주택	24	23	25	29	31	32	33	35	35	36	38	39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4,079	4,352	4,585	4,841	5,063	5,163	5,242	5,287	5,529	5,725	5,821	6,069
	노인요양시설	2,489	2,610	2,497	2,707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4,057	4,34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90	1,742	2,088	2,134	2,130	2,027	1,981	1,897	1,934	1,881	1,764	1,723
	노인전문병원 ¹⁾	-	-	-	-	-	-	-	-	-	-	-	-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계	63,375	64,077	64,983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68,823	69,786
	노인복지관	281	300	319	344	347	350	364	385	391	398	357	366
	경로당	61,537	62,442	63,251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67,211	68,180
	노인교실	1,557	1,335	1,413	1,361	1,377	1,393	1,356	1,342	1,285	1,291	1,255	1,240
	노인휴양소 ¹⁾	-	-	-	-	-	-	-	-	-	-	-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²⁾	소계	2,750	3,003	2,832	2,797	3,089	3,168	3,216	3,494	4,821	7,212	9,984	13,272
	방문요양서비스	1,180	1,113	1,042	992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4,156	5,808
	주야간보호서비스	842	840	848	913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2,618	3,035
	단기보호서비스	95	94	110	96	112	95	80	73	78	73	69	70
	방문목욕서비스	633	633	603	588	617	588	609	650	942	1,596	2,415	3,394
	방문간호서비스 ³⁾	-	-	-	-	-	-	10	21	60	95	158	234
	복지옹구지원서비스 ⁴⁾	-	-	-	-	-	-	-	-	-	86	208	36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⁵⁾	-	323	229	208	332	390	342	387	412	385	360	363	
노인보호전문기관		25	25	25	28	29	29	32	33	34	35	37	3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⁶⁾		-	-	-	-	129	136	153	160	184	196	206	206
학대피해노인쉼터 ⁷⁾		-	-	-	-	-	-	-	18	19	19	20	2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주: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외(2011.12.8.)
 2)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6.7.1.)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12.12.)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0.2.24.)
 6)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3.12.15.)
 7)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2.7.)

13. 자산 소유액 및 구성¹⁾

(단위: 만 원)

65세 이상	순자산 ²⁾	자산	자산 구성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저축액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2013	25,769	28,951	4,337	3,519	818	24,614	23,812	803	3,182	1,659	1,523
2014	26,365	29,720	4,422	3,664	758	25,298	24,175	1,123	3,355	1,705	1,650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2021	41,048	45,615	7,454	6,299	1,155	38,161	36,881	1,280	4,567	2,628	1,939
2022	45,364	50,289	7,488	6,243	1,245	42,801	41,453	1,348	4,925	2,685	2,240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

2) 순자산 = 자산 - 부채

14. 은퇴연령층 빈곤율

(단위: %, 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¹⁾		지니계수 ²⁾		소득 5분위 배율 ³⁾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2011	57.8	47.8	0.560	0.460	40.14	11.43
2012	56.7	47.0	0.556	0.458	40.26	11.48
2013	56.9	47.7	0.555	0.453	39.43	11.23
2014	57.3	46.0	0.567	0.450	47.99	10.73
2015	57.8	44.3	0.564	0.427	46.71	9.27
2016	58.7	45.0	0.568	0.425	49.47	9.05
2017	58.3	44.0	0.564	0.419	45.97	8.82
2018	59.9	43.4	0.560	0.406	41.99	7.94
2019	61.0	43.2	0.554	0.389	42.82	7.21
2020	60.2	40.4	0.554	0.376	43.13	6.62
2021	59.5	39.3	0.552	0.379	41.08	6.92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2)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3)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15.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명)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¹⁾	공적연금 수급자 수 ²⁾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4	41.1	2,580,260	2,273,816	88.1	222,325	8.6	34,894	1.4	49,225	1.9
2015	42.8	2,802,065	2,473,690	88.3	240,041	8.6	37,737	1.3	50,597	1.8
2016	44.6	3,015,710	2,664,358	88.3	256,695	8.5	41,736	1.4	52,921	1.8
2017	46.9	3,313,618	2,936,683	88.6	279,524	8.4	42,508	1.3	54,903	1.7
2018	48.7	3,584,900	3,180,045	88.7	300,037	8.4	47,084	1.3	57,734	1.6
2019	50.9	3,914,457	3,478,558	88.9	323,430	8.3	52,326	1.3	60,143	1.5
2020	52.9	4,315,019	3,842,189	89.0	351,922	8.2	58,749	1.4	62,159	1.4
2021	55.1	4,723,381	4,215,028	89.2	379,008	8.0	65,040	1.4	64,305	1.4
2022	57.6	5,193,218	4,648,286	89.5	407,200	7.8	72,198	1.4	65,534	1.3
남자	77.7	3,061,098	2,604,462	85.1	286,333	9.4	125,668	4.1	44,635	1.5
여자	44.0	2,236,747	2,043,824	91.4	120,867	5.4	51,157	2.3	20,899	0.9
65~69세	66.1	2,024,894	1,832,690	90.5	141,356	7.0	35,226	1.7	15,622	0.8
70~74세	61.4	1,331,367	1,203,757	90.4	101,061	7.6	14,947	1.1	11,602	0.9
75~79세	61.4	983,382	888,526	90.4	72,113	7.3	10,962	1.1	11,781	1.2
80세 이상	39.1	855,345	723,313	84.6	92,670	10.8	13,233	1.5	26,129	3.1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의 합계임

16-1. 고용률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¹⁾	실업률 ²⁾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6	4,529	1,381	1,371	10	30.3	0.7
2007	4,759	1,491	1,482	10	31.1	0.7
2008	4,983	1,535	1,523	12	30.6	0.8
2009	5,177	1,571	1,553	18	30.0	1.2
2010	5,361	1,590	1,553	38	29.0	2.4
2011	5,527	1,642	1,606	36	29.1	2.2
2012	5,766	1,770	1,733	37	30.1	2.1
2013	6,022	1,879	1,851	28	30.7	1.5
2014	6,277	1,995	1,954	41	31.1	2.1
2015	6,534	2,034	1,985	48	30.4	2.4
2016	6,767	2,116	2,068	49	30.6	2.3
2017	7,071	2,228	2,166	62	30.6	2.8
2018	7,386	2,381	2,311	70	31.3	2.9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2021	8,582	3,112	2,992	119	34.9	3.8
2022	9,027	3,365	3,265	100	36.2	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16-2. 산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 금융업
2014	1,954	100.0	33.6	5.1	5.1	61.3	3.8	17.5	33.1	6.9
2015	1,985	100.0	30.5	5.5	5.5	64.0	3.5	17.8	35.5	7.1
2016	2,068	100.0	28.4	6.2	6.2	65.4	3.3	16.6	38.4	7.1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6.9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6
2021	2,992	100.0	25.0	5.7	5.7	69.3	4.3	13.1	44.0	7.8
2022	3,265	100.0	24.7	5.9	5.9	69.4	4.9	12.9	43.7	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16-3.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4	1,954	100.0	4.8	2.6	15.2	31.7	11.3	34.4
2015	1,985	100.0	4.9	2.5	16.0	28.7	12.4	35.5
2016	2,068	100.0	4.5	2.6	16.8	26.8	12.8	36.5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2021	2,992	100.0	4.8	3.4	16.8	24.2	14.1	36.6
2022	3,265	100.0	5.1	3.3	16.7	24.2	15.2	3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7년) 기준임

17. 평생교육 참여율¹⁾

(단위: %)

65~79세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2017	26.9	0.2	26.9	3.0		
2018	32.7	0.1	32.6	5.5		
2019	32.5	0.1	32.4	4.9		
2020	29.5	0.1	29.4	6.0		
2021	19.2	0.2	19.2	4.9		
2022	17.6	X ⁶⁾	17.6	5.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6) 사례수가 작아 공표하지 않음

18. 노인차별¹⁾²⁾

(단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2019	16.4	4.8	13.1	36.2	6.1	14.7	-	-	-
2020	13.8	4.8	7.7	21.9	2.5	6.6	6.0	3.6	5.8
2021	6.1	5.3	8.7	18.4	4.8	11.2	7.7	6.5	4.6
2022	5.1	5.1	10.4	18.9	4.9	9.5	7.3	5.2	4.7
남자	3.5	4.8	10.1	18.8	4.8	9.6	7.1	5.3	5.5
여자	6.6	5.3	10.8	19.0	5.0	9.4	7.6	5.1	4.0
30세 미만	5.0	6.0	7.1	19.9	5.2	9.3	6.5	6.7	6.1
30대	7.3	5.4	8.5	21.8	5.2	8.4	4.7	6.4	4.9
40대	5.8	5.5	8.4	19.1	5.5	9.6	6.9	6.1	4.9
50대	4.7	4.8	9.9	19.0	4.9	10.1	8.5	5.0	4.8
60세 이상	3.9	4.3	15.0	16.6	4.3	9.8	8.7	3.2	3.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19. 세대갈등¹⁾²⁾

(단위: 점, %)

	평균 ³⁾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2013	2.8	2.2	33.7	50.2	13.9
2014	2.7	2.3	35.4	47.9	14.4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2021	2.7	3.2	36.3	48.7	11.8
2022	2.7	2.7	37.7	49.3	10.3
19~29세	2.6	3.2	41.3	44.5	11.1
30~39세	2.7	2.5	36.0	49.8	11.7
40~49세	2.7	2.9	35.1	51.7	10.3
50~59세	2.7	2.1	38.2	49.0	10.7
60세 이상	2.7	2.7	38.0	50.2	9.1
65세 이상	2.6	2.8	39.0	48.7	9.5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중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

20. 보행 안전성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사망자 수	사망률 ¹⁾		부상자 수	부상률 ²⁾	
		연령대	인구 10만 명당 명		연령대	인구 10만 명당 명
2005	991		22.9	6,321		146.3
2006	961		21.2	6,169		136.3
2007	985		20.7	6,541		137.4
2008	903		18.1	7,181		143.9
2009	952		18.4	7,832		151.3
2010	966		18.0	7,924		147.7
2011	883		16.0	8,131		147.4
2012	959		16.6	8,651		150.0
2013	951		15.8	9,413		156.3
2014	919		14.6	10,031		159.8
2015	909		13.9	10,772		164.7
2016	866		12.8	10,693		158.2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1.0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3
2021	601		7.0	9,423		109.9
2022	558		6.2	10,016		111.1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2)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21. 운전자 사고 비중¹⁾

(단위: 건, 명, %)

65세 이상	사고 건수	비중 ³⁾		사망자 수	비중 ⁴⁾		치사율 ²⁾	부상자 수	비중 ⁵⁾
2015	23,063	9.9		815	17.6	3.5	33,787	9.6	
2016	24,429	11.1		759	17.7	3.1	35,687	10.8	
2017	26,713	12.3		848	20.3	3.2	38,627	12.0	
2018	30,012	13.8		843	22.3	2.8	43,469	13.5	
2019	33,239	14.5		769	23.0	2.3	48,223	14.1	
2020	31,072	14.8		720	23.4	2.3	44,269	14.5	
2021	31,841	15.7		709	24.3	2.2	44,713	15.3	
2022	34,652	17.6		735	26.9	2.1	49,281	17.5	
65~69세	16,952	8.6		295	10.8	1.7	24,256	8.6	
70~74세	9,738	4.9		167	6.1	1.7	14,143	5.0	
75~79세	5,095	2.6		122	4.5	2.4	7,049	2.5	
80~84세	2,252	1.1		106	3.9	4.7	3,047	1.1	
85세 이상	615	0.3		45	1.6	7.3	786	0.3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2) 치사율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 × 100

3) 사고 건수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건수 ÷ 전체 운전자 사고 건수) × 100

4) 사망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100

5) 부상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100

22. 고령자 학대 피해¹⁾²⁾ 경험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학대 피해 경험률 ³⁾	성별 ⁴⁾		연령별 ⁵⁾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7	45.5	35.1	52.5	17.4	40.2	57.2	109.8
2008	44.5	34.4	51.4	16.1	35.8	58.1	111.2
2009	48.3	35.6	57.1	17.4	38.5	65.4	113.8
2010	54.0	42.1	62.2	20.9	44.2	64.4	126.3
2011	58.4	43.4	68.8	24.4	47.4	73.0	123.6
2012	56.0	41.1	66.4	23.6	43.4	64.7	124.1
2013	55.1	36.6	68.3	24.1	41.5	61.3	122.3
2014	53.1	37.5	64.3	22.5	37.1	65.2	114.1
2015	55.2	37.0	68.4	24.9	43.3	64.1	111.1
2016	60.1	39.1	75.5	26.7	49.3	69.8	115.9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9	34.8	66.4	79.2	117.8
2019	68.2	38.5	90.6	37.5	63.0	72.8	112.1
2020	76.8	44.0	101.7	46.6	69.6	83.2	121.4
2021	79.0	43.8	106.1	49.3	72.0	88.9	121.3
2022	75.5	39.7	103.3	47.9	66.4	85.6	115.7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4) 성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성별 추계인구) × 100,000

5) 연령대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연령대별 추계인구) × 100,000

23. 주거 만족도

(단위: 점)

65세 이상 ¹⁾	주택 만족도 ²⁾	주거 환경 만족도 ³⁾	편의 시설	의료· 복지 시설	공공 시설	문화 시설	공원· 녹지	대중 교통	주차 시설	보행 안전	교육 환경	치안 문제	소음 문제	주변 정결	대기 오염	지역 유대
2018	2.89	2.89	2.78	2.74	2.78	2.59	2.81	2.81	2.76	2.95	2.82	2.95	2.86	2.98	2.98	3.09
수도권 ⁴⁾	2.92	2.91	2.91	2.88	2.91	2.68	2.89	2.94	2.71	2.96	2.94	2.96	2.80	2.96	2.91	3.05
비수도권	2.87	2.87	2.69	2.65	2.70	2.53	2.76	2.73	2.79	2.94	2.74	2.95	2.91	3.00	3.04	3.12
2019	2.92	2.87	2.75	2.72	2.79	2.55	2.89	2.85	2.82	2.98	2.83	2.99	2.92	3.04	3.03	3.13
수도권 ⁴⁾	2.95	2.93	2.87	2.85	2.89	2.67	2.95	2.98	2.81	3.00	2.93	3.00	2.89	3.01	2.96	3.07
비수도권	2.91	2.82	2.67	2.64	2.72	2.47	2.85	2.76	2.83	2.97	2.76	2.98	2.93	3.05	3.08	3.18
2020	2.92	2.93	2.78	2.75	2.82	2.51	2.94	2.89	2.83	3.02	2.85	3.02	2.94	3.05	3.08	3.14
수도권 ⁴⁾	2.95	2.97	2.92	2.89	2.93	2.60	2.96	3.05	2.80	3.03	2.94	3.03	2.88	3.03	2.98	3.07
비수도권	2.91	2.90	2.69	2.65	2.74	2.44	2.92	2.78	2.85	3.01	2.78	3.02	2.97	3.07	3.15	3.18
2021	2.93	2.92	2.82	2.79	2.83	2.53	2.93	2.89	2.79	3.01	2.87	3.03	2.94	3.07	3.08	3.11
수도권 ⁴⁾	2.96	2.97	2.96	2.93	2.95	2.65	3.00	3.02	2.80	3.03	2.96	3.04	2.93	3.06	3.00	3.05
비수도권	2.91	2.88	2.72	2.69	2.75	2.44	2.88	2.79	2.79	2.99	2.80	3.03	2.95	3.09	3.13	3.15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2)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3)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4) 서울, 인천, 경기

24. 삶에 대한 만족도¹⁾

(단위: %)

65세 이상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03	15.9	2.9	13.0	50.0	34.1	25.5	8.6
2006	23.1	4.6	18.5	45.9	31.0	21.2	9.8
2009	12.8	2.3	10.5	38.9	48.3	37.0	11.3
2010	21.3	4.5	16.8	47.7	31.0	24.3	6.7
2011	13.1	3.2	10.0	48.4	38.5	28.6	9.9
2012	22.9	5.0	17.9	43.5	33.6	25.5	8.1
2013	21.2	5.3	16.0	49.4	29.3	22.0	7.4
2014	30.8	7.8	23.0	48.2	21.0	16.8	4.2
2015	21.8	5.0	16.8	52.9	25.2	19.7	5.5
2016	31.2	6.8	24.4	49.7	19.1	16.0	3.1
2017	19.3	3.2	16.1	52.0	28.7	22.3	6.4
2018	29.9	6.1	23.8	47.7	22.4	18.5	3.9
2019	25.0	6.2	18.8	50.3	24.7	19.5	5.3
2020	33.5	8.6	25.0	50.9	15.6	12.7	2.9
2021	25.0	6.5	18.6	49.7	25.3	20.4	4.9
2022	34.3	7.7	26.5	48.5	17.2	14.1	3.1
남자	35.7	8.3	27.4	48.4	15.9	13.1	2.8
여자	33.2	7.3	25.9	48.5	18.3	14.9	3.3
65~69세	37.1	8.6	28.5	47.5	15.5	12.8	2.7
70~74세	35.2	8.3	26.9	46.9	17.9	15.1	2.8
75~79세	33.2	7.2	26.0	51.3	15.5	11.4	4.0
80세 이상	30.2	6.4	23.8	49.2	20.6	17.4	3.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임

25. 성취에 대한 만족도¹⁾

(단위: %)

65세 이상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7	18.2	2.8	15.3	52.7	29.2	23.3	5.8
2018	25.3	4.6	20.8	49.6	25.0	20.7	4.3
2019	21.8	4.1	17.7	51.3	26.9	20.8	6.1
2020	28.6	5.7	23.0	48.1	23.3	18.7	4.6
2021	23.6	5.3	18.3	51.4	25.0	19.6	5.5
2022	31.2	5.4	25.8	49.8	19.0	15.5	3.5
남자	34.1	5.9	28.2	47.2	18.7	15.1	3.6
여자	29.0	5.0	24.0	51.7	19.3	15.9	3.4
65~69세	33.1	6.4	26.7	49.0	17.9	15.1	2.8
70~74세	31.9	5.0	26.9	49.1	19.1	15.7	3.4
75~79세	30.6	4.8	25.9	50.6	18.8	14.8	3.9
80세 이상	28.3	4.8	23.5	50.8	20.9	16.6	4.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임

□ 국제비교: 1. OECD 주요 국가별 연령구조

(단위: 천명, %)

	2010년				2021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14세	15-64세	65세 이상
호주	22,019	19.1	67.4	13.6	25,921	18.4	65.1	16.6
오스트리아	8,363	14.8	67.5	17.6	8,922	14.4	66.2	19.4
벨기에	10,878	16.9	65.9	17.2	11,611	16.7	63.9	19.4
캐나다	33,963	16.6	69.4	14.1	38,155	15.7	65.7	18.5
칠레	17,004	21.5	68.7	9.8	19,493	18.5	68.9	12.7
체코	10,465	14.4	70.1	15.5	10,511	16.0	63.5	20.5
덴마크	5,551	18.0	65.4	16.6	5,854	16.2	63.6	20.3
에스토니아	1,332	15.2	67.3	17.4	1,329	16.5	63.2	20.4
핀란드	5,363	16.6	66.2	17.3	5,536	15.4	61.7	22.9
프랑스	62,445	18.3	64.7	17.0	64,531	17.4	61.3	21.3
독일	81,325	13.6	65.9	20.5	83,409	13.9	64.0	22.2
그리스	11,034	14.6	66.2	19.3	10,445	14.1	63.4	22.5
헝가리	9,987	14.7	68.7	16.6	9,710	14.6	65.0	20.4
아이슬란드	318	20.9	66.9	12.1	370	18.6	66.4	14.9
아일랜드	4,525	21.1	67.6	11.3	4,987	19.9	65.3	14.8
이스라엘	7,328	27.8	62.2	10.0	8,900	28.2	59.9	11.9
이탈리아	59,822	14.1	65.5	20.4	59,240	12.7	63.7	23.7
일본	128,105	13.2	63.2	23.6	124,613	11.8	58.4	29.8
룩셈부르크	507	17.7	68.4	13.9	639	15.9	69.3	14.7
멕시코	112,532	29.9	63.9	6.2	126,705	25.0	66.9	8.1
네덜란드	16,617	17.5	67.0	15.4	17,502	15.5	64.5	20.0
뉴질랜드	4,346	20.9	66.2	13.0	5,130	18.9	65.2	15.9
노르웨이	4,890	18.8	66.2	15.0	5,403	17.0	64.9	18.1
폴란드	38,597	15.2	71.4	13.4	38,308	15.4	65.8	18.8
포르투갈	10,588	15.2	66.2	18.6	10,290	13.3	64.1	22.6
대한민국	49,554	16.1	73.1	10.8	51,745	11.9	71.6	16.6
슬로바키아	5,396	15.4	72.0	12.5	5,448	15.9	66.9	17.2
슬로베니아	2,057	14.2	69.5	16.3	2,119	15.2	64.3	20.5
스페인	46,573	15.0	68.1	16.9	47,487	14.1	66.0	19.9
스웨덴	9,382	16.6	65.1	18.3	10,467	17.7	62.2	20.1
스위스	7,822	15.2	68.0	16.8	8,691	15.1	66.0	19.0
튀르키예	73,195	26.7	66.9	6.4	84,775	23.5	68.1	8.4
영국	62,760	17.6	66.0	16.3	67,281	17.7	63.4	18.9
미국	311,183	19.9	67.1	13.0	336,998	18.2	65.1	16.7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국제비교: 2. OECD 주요 국가의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도달연도 및 소요연수 (단위: 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도달연도				고령사회 도달 소요연수 (7% → 14%)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연수 (14% → 20%)	20% → 30% 도달 소요연수
	7% ¹⁾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30%			
호주	1939	2012	2033	2081	73	21	48
오스트리아	1929	1970	2023	2049	41	53	26
벨기에 ²⁾	1925	1976	2023	2070	51	47	47
캐나다	1945	2010	2024	2076	65	14	52
칠레	1995	2025	2037	2058	30	12	21
체코 ²⁾	-	2005	2020	2100+	-	15	80+
덴마크	1925	1978	2020	2096	53	42	76
에스토니아	-	1997	2020	2053	-	23	33
핀란드	1957	1994	2015	2060	37	21	45
프랑스 ²⁾	1864	1979	2018	2063	115	39	45
독일	1932	1972	2008	2046	40	36	38
그리스	1952	1991	2013	2039	39	22	26
헝가리 ²⁾	-	1994	2020	2061	-	26	41
아이슬란드	-	2017	2035	2063	-	18	28
아일랜드	-	2019	2035	2078	-	16	43
이스라엘	1971	2038	2076	2100+	67	38	24+
이탈리아	1927	1988	2007	2033	61	19	26
일본	1969	1994	2004	2023	25	10	19
룩셈부르크 ²⁾	-	1997	2034	2067	-	37	33
멕시코	2016	2039	2053	2077	23	14	24
네덜란드	1940	2004	2022	2068	64	18	46
뉴질랜드	-	2013	2031	2074	-	18	43
노르웨이	1885	1977	2028	2075	92	51	47
폴란드	1966	2012	2025	2050	46	13	25
포르투갈	1950	1992	2014	2038	42	22	24
대한민국	2000	2018	2025	2035	18	7	10
슬로바키아	1961	2015	2030	2053	54	15	23
슬로베니아	-	2001	2020	2044	-	19	24
스페인	1947	1992	2022	2039	45	30	17
스웨덴	1887	1972	2020	2078	85	48	58
스위스	1931	1985	2024	2054	54	39	30
튀르키예	2015	2035	2048	2080	20	13	32
영국	1929	1975	2025	2073	46	50	48
미국	1942	2014	2029	2093	72	15	64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사회문제 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2022)」

주: 1) 65세 이상 인구 7%가 1950년 이전에 도달한 경우,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사회문제 연구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자료가 없는 경우 '-' 표기
2)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최초로 7%, 14%, 20%에 도달한 시점으로 산정

□ 국제비교: 3.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단위: 년)

	남자		여자	
	2011	2021	2011	2021
평균 ¹⁾	17.3	17.8	20.8	21.2
호주	19.1	20.3	22.0	23.0
오스트리아	18.1	18.0	21.7	21.1
벨기에	18.0	18.5	21.6	22.1
캐나다	18.6	-	21.6	-
칠레	17.3	18.8	20.7	22.1
콜롬비아	16.6	-	19.0	-
코스타리카	18.2	18.9	20.7	21.5
체코	15.6	14.5	19.2	18.6
덴마크	17.3	18.3	20.1	20.9
에스토니아	14.8	14.5	20.1	19.6
핀란드	17.7	18.6	21.7	22.1
프랑스	19.3	19.2	23.8	23.3
독일	17.7	17.8	21.1	21.1
그리스	18.2	17.6	21.2	20.7
헝가리	14.3	13.2	18.3	17.3
아이슬란드	18.9	20.5	21.5	21.9
아일랜드	17.9	19.2	20.9	21.8
이스라엘	18.9	19.3	21.1	21.8
이탈리아	18.5	18.9	22.2	22.1
일본	18.7	19.9	23.7	24.7
대한민국	17.1	19.3	21.5	23.7
라트비아	13.4	12.7	18.7	17.6
리투아니아	14.0	13.2	19.2	18.2
룩셈부르크	17.8	19.0	21.6	22.2
멕시코	16.7	-	18.9	-
네덜란드	18.1	18.2	21.2	20.8
뉴질랜드	18.6	19.7	21.1	22.0
노르웨이	18.2	19.8	21.4	21.8
폴란드	15.4	14.0	19.9	18.4
포르투갈	17.8	18.3	21.6	22.0
슬로바키아	14.5	13.3	18.4	17.1
슬로베니아	16.9	17.2	21.1	21.2
스페인	18.8	19.2	23.0	23.5
스웨덴	18.5	19.6	21.3	22.1
스위스	19.2	20.1	22.6	23.0
튀르키예	14.1	-	16.1	-
영국	18.5	-	21.1	-
미국	17.8	17.0	20.4	19.7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3.9.1. 기준

주: 1) 2021년 자료가 공표된 OECD 33개국 평균임

□ 국제비교: 4.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¹⁾

(단위: %)

	상대적 빈곤율 ²⁾ (중위소득 50% 이하)				지니계수 ³⁾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호주	-	-	10.1	22.6	-	-	0.309	0.319
오스트리아	9.1	10.1	8.7	10.6	0.274	0.27	0.271	0.268
벨기에	7.3	10.5	6.8	8.6	0.261	0.231	0.247	0.213
캐나다	11.4	12.6	8.1	12.1	0.303	0.294	0.28	0.278
코스타리카	16.4	24.8	18.5	17.0	0.47	0.495	0.491	0.502
체코	4.3	8.2	4.6	5.1	0.241	0.201	0.253	0.198
덴마크	7.7	4.3	-	-	0.267	0.254	-	-
에스토니아	11.1	34.5	11.9	34.6	0.29	0.297	0.291	0.284
핀란드	6.9	7.4	6.3	6.9	0.279	0.244	0.271	0.24
프랑스	8.5	4.4	-	-	0.297	0.275	-	-
독일	10.7	11.0	-	-	0.299	0.27	-	-
그리스	12.2	7.1	13.5	9.3	0.321	0.273	0.328	0.285
헝가리	8.4	13.2	9.0	6.1	0.281	0.303	0.283	0.245
아일랜드	7.2	12.6	6.3	14.7	0.291	0.299	0.282	0.284
이스라엘	14.3	18.9	15.0	17.0	0.332	0.355	0.335	0.346
이탈리아	13.7	10.7	13.7	10.3	0.327	0.319	0.332	0.323
대한민국	11.1	43.2	10.6	40.4	0.317	0.389	0.312	0.376
라트비아	12.7	33.8	13.2	35.0	0.334	0.341	0.344	0.374
리투아니아	11.6	28.7	11.3	27.0	0.347	0.322	0.352	0.307
룩셈부르크	10.0	5.2	8.9	5.2	0.308	0.264	0.289	0.268
멕시코	-	-	14.7	19.8	-	-	0.418	0.451
네덜란드	8.0	5.6	8.1	6.0	0.313	0.268	0.295	0.246
뉴질랜드	10.8	19.8	10.5	16.8	0.315	0.334	0.31	0.313
노르웨이	9.6	4.3	9.7	4.4	0.273	0.224	0.275	0.225
폴란드	8.8	13.4	8.6	13.2	0.27	0.254	0.267	0.255
포르투갈	9.8	10.7	11.8	13.8	0.304	0.323	0.319	0.344
슬로바키아	6.9	6.6	-	-	0.217	0.208	-	-
슬로베니아	6.4	13.0	6.4	10.7	0.245	0.251	0.237	0.245
스페인	13.8	11.6	14.8	11.3	0.319	0.303	0.328	0.31
스웨덴	8.4	11.1	8.5	9.4	0.269	0.287	0.271	0.282
스위스	7.2	18.8	-	-	0.304	0.326	-	-
튀르키예	11.9	13.7	-	-	0.405	0.402	-	-
영국	11.0	15.5	10.4	13.1	0.36	0.331	0.355	0.319
미국	15.7	23.0	14.3	21.6	0.387	0.421	0.369	0.397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3.9.1. 기준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2)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3)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